

## 베트남 젊은이들을 섬기는 한인 사역자 포럼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 주 고려대에 붙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의 물음은 대학 사회와 한국 사회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자보의 핵심은 ‘옆으로 눈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에 죄책감을 가진 한 대학생의 안부를 묻는 대자보를 보며, 베트남 땅에서 살아가는 한인 선교사님들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자보를 쓴 대학생은 “생각하며 공부하는 대학생, 문제의식과 동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전 한인 사역자들에게 선교 모라토orium(선교유예)을 선언하고, 한인 사역자들이 전원 본국으로 철수한다면 베트남 선교는 어떻게 될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SVM)을 주도했던 존 모트는 1910년에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라는 주제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선교대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때 다룬 핵심적인 주제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How Mission)’의 문제였습니다. 시종일관 이어진 토론은 효과적이면서 전략적이며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인 첫 모임이었지만 선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선교현장에서 실현해 보자는 뜻으로 뭉쳐진 모임으로 현대 선교의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한 대회였습니다.

기존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탄압과 견제를 받으며 불과 10여 명의 적은 숫자로 시작한 예수회가 16세기 중반 이후 가톨릭 교회의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며, 가톨릭 교회의 선봉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요? 예수회를 설립한 만학도 이냐시오가 불편한 다리를 끌며, 명문 파리 대학 청년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들의 전 생애를 걸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요? 해외 선교에 집중하며, ‘사역 중의 관상(Contemplation in Action)’을 모토로 삼았던 예수회는 마테오 리치(중국),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인도), 알렉산드르 드 로드(베트남)와 같은 거목을 길러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지식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종 번역본을 종합해 보면, 무지한 열심(열정)은 가치가 없고, 서두르는 것(지식 없이 덤비는 것)은 헛되게(낭비, 죽이는)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는 대체로 가슴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 선교사는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는 선교지 상황과 상관없이 한국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전략 없는 영성은 신비주의이다”라고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들간에 옆으로 눈을 돌려, “서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고, 생각을 나누고, 사귀어 잇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통과 공감의 베트남 선교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How Mission)’ 문제에 함께 응답함으로써 전략적이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베트남 젊은이들을 섬기는 한인 사역자들의 연합운동이 일어나며, 우리의 선교적 리더십이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윤한열 선교사

## Time Table

| 시 간           | 내 용  | 비고                               |
|---------------|--|----------------------------------|
| 08:30 - 08:45 | 접수   |                                  |
| 08:45 - 09:00 | 참석자 소개   | 임시연                              |
| 09:00 - 09:40 | <b>I. 기초 발제</b><br>“베트남 젊은이 선교, 그 필요와 전망”  | 진행: 박지성<br>발제: 윤한열               |
| 09:40 - 10:30 | <b>II. Case Study</b><br>“베트남 젊은이 선교 사역 현황”<br>1. 학사공동체<br>2. 훈련 프로그램<br>3. 대학교 강의 | 진행: 김봉선<br>발제: 김형일<br>박보갑<br>임시연 |
| 10:30 - 10:50 | Coffee Break   |                                  |
| 10:50 - 12:00 | <b>III. Issues Finding</b><br>“종합토론”<br>-베트남 젊은이들을 섬기는 한인 사역자<br>연합 운동 전망-         | 진행: 임시연                          |
| 12:00 - 13:30 | 식사 및 교제  | 스카이라운지<br>(12층)                  |

제 1회 베트남 젊은이들을 섬기는 한인 사역자 포럼 자료집  
-베트남 젊은이 사역 방향에 대한 나눔과 전망-  
(Talk and Prospect for Vietnamese Young Men Ministry)

◆ 목차

|                               |       |    |
|-------------------------------|-------|----|
| 포럼을 준비하면서                     |       | 1  |
| Time Table                    |       | 2  |
| 1. 베트남 젊은이 선교, 그 필요와 전망       | 윤한열   | 4  |
| 2. 베트남 젊은이들을 위한 학사 공동체 사역     | 김형일   | 13 |
| 3. 훈련 사역을 통한 베트남 젊은이 선교       | 박보갑   | 21 |
| 4. 베트남 젊은이 선교를 위한 대학 강의 사역    | 임시연   | 28 |
| 5.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 분석을 통한 선교 전략  | 윤한열   | 35 |
| 6. 알렉산드르 드 로드 선교 리더십의 21세기 적용 | 윤한열   | 50 |
| 7. K-MAC 소개 : 2013년 10월 소식지   | K-MAC | 57 |

## 베트남 젊은이 선교, 그 필요와 전망

윤한열<sup>1)</sup>

### 들어가는 말

급변하는 시대에 타문화권 선교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변화하는 세계 동향과 선교지의 상황을 읽어내어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는 동서양 문명이 상호 교차되면서 발전해 왔다. 미래 역사가들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이 하강하고, 아시아가 뚜렷하게 상승하는 아시아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한다.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서양(유럽)이 상승할 때는 기독교 선교가 활발했고, 동양(아시아)이 상승할 때는 이슬람 선교가 우세를 점했다. 지금 세계의 판도는 기독교 선교가 급격히 하강하고, 이슬람 선교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선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도전 앞에서 아시아의 선교사들, 특히 한국선교사들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소수 민족, 빈민층, 저학력자, 비주류 교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모두 예외가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렇게 편중된 사역은 세계 복음화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데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섬김의 영역을 결정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종종 생각해보곤 한다. 나는 그가 우리의 큰 대학들 중 몇으로 곧장 들어오리라고 확신한다. 신약의 기록 중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략적 거점(Strategic Centres)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점을 잡았다. 오늘날, 이러한 거점은 대학인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교사, 교수, 의사, 설교가, 작가, 행정가 등 미래의 지도자가 훈련을 받는다”라고 1932년 영국에서 열린 IVF 수련회에서 한 유명한 의학교수가 말했다.

위와 같은 시대적 도전 앞에서 동남아시아와 베트남 선교의 판도 변화의 측면에서 젊은이 선교(지성 사회의 복음화, 주류사회, 영향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발전 방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 베트남의 상황적 측면

#### 1. 세계에서 제일 젊은 국가 : 폭발하는 대학생 인구

베트남은 2013년에 인구 9천만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수가 4백만

1) 윤한열 선교사는 1999년 베트남에 도착하여, 베트남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며 캠퍼스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에 이르렀다. 베트남의 인구는 1억에 육박하여 내수시장만으로도 시장성이 있는 중요한 신흥 공업국가로 분류된다. 게다가 질 좋은 경제 가용인구가 임금 대비 최고의 수준이다.

2006년 10월 20일 중앙일보 국제면 상단 전체를 차지하는 ‘젊은 베트남’이라는 제목의 톱기사 있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베트남이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무기로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베트남 현지 일간지 익스프레스가 2006년 10월 19일 국가 통계국 발표를 인용 “2005년 말 현재 베트남 인구가 8,311만 명인데, 이중 63%가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이후 태어난 젊은이”라고 보도했다. 익스프레스는 “이는 인구의 3분의 2가 30세 이하라는 뜻으로,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인 셈”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대학교의 수와 대학생 인구는 폭발적이다. 필자가 2000년도에 호찌민시의 대학을 리서치할 당시 30여 개의 대학교(3년제 포함)가 있었는데, 2013년 현재 약 70개 정도가 있다. 대학생 인구는 약 60만 명에 이르렀으며, 베트남 전체 대학생 인구는 약 2백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sup>2)</sup>

1960년 OMF 선교사이며 IFES의 협력간사인 폴과 마이더 콘텐츠 부부는 1960년 사이공에 도착했다. 그들은 협력자를 구하기 위해 넉 달 동안 전국을 여행하며 리서치 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말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학생 인구의 폭발이고 이 도전에 달려들 시간 혹은 방법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sup>3)</sup>

이 보고서는 영국 본국에 발송되었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지금도 영국, 한국 등 IVF 활동이 활발한 주요 국가의 IVF 역사 책자에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콘텐츠 부부가 쓴 보고서를 반세기 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써야할 것 같다. 이것이 베트남의 현실이다. 1975년 봄에 콘텐츠 부부가 사이공을 떠날 때 5개의 대학과 17개의 고등학교에서 활동하는 300명의 IVF 멤버들을 남겼다. 그러나 지금은 캠퍼스 선교에 대한 정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다.

## 2. 미래 베트남 사회의 지도자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길러내는 곳이 대학이다. 앞으로 한 나라를 움직일 지성인들이 배출되는 곳이다.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예외는 아닐 것이다.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지성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3. 젊은 세대의 영향력

베트남에서도 여론을 형성하는 층이 20, 30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일

2) 2011년 5월 19일자 DAN TRI 신문에서 베트남 교육양성부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호찌민시의 대학교 수(3년제 포함)는 69개이며, 대학생 인구는 516,000명이었다. 또한 위키피디아에 베트남 대학교 명부가 시도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3) 피너 로만, IVF 역사와 정신, 한국기독교학생회 자료개발부, 1999. pp.157.

간지인 '뚜오이찌'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일간지로 그 이름 뜻이 '젊은 세대'이며 내용, 광고 또한 젊은 세대의 감각을 중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로 등장하는 상품이 오토바이, 휴대폰, 영어학원이다. 그런데 이들 상품은 모두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 전 영역에서 젊은이들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정치가나 장사꾼들도 모두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미완성 과업의 도전 앞에서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품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II. 전략적 측면 : 예수회 선교 전략의 21세기적 적용<sup>4)</sup>

동과 서의 만남, 유럽과 비유럽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은 16세기부터였다. 이 시기부터 역사상 진지하게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적 이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선봉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있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기독교 복음이 현지 문화와 어떤 범위에 까지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선교를 위해 어디까지 복음의 문화적 표현을 양보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했다. 특별히 각 나라의 전통 종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표적인 선교사로는 예수회 설립자인 이냐시오 로올라, 마테오 리치(중국),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인도), 알렉산드르 드 로드(베트남)가 있다.

필자는 예수회 선교 전략에 대해 논하지만 개신교 선교사로서의 학문적 출발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1. 영성과 사역의 근본 모토 : 이 세상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Finding God in All Thing)

이냐시오는 도시의 소란과 번잡스러움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시의 한 복판으로 진출할 것을 독려했고 선교 현지의 토착문화를 거부하거나 백안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활동무대로 보았다. 이냐시오의 영성은 중국의 마테오 리치와 베트남의 알렉산드르 드 로드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은 사역(Ministry)과 영성(Spirituality)을 분리하지 않았다. 사역중의 관상(Contemplation in Action)을 중시했다.

기득권으로부터 많은 탄압과 견제를 받으며 불과 10여 명의 적은 숫자로 시작한 예수회가 16세기 중반 이후 가톨릭 교회의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는 가톨릭 교회의 선봉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16세기에 설립된 수도회 중 가장 강력한 종교적 리더십이 발휘되었던 이 새로운 수도회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였을까?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채 불편한 다리를 끌며 다녔던 만학도 이냐시오가 명문 파리 대학 청년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들의 전 생애를 걸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 2. 이냐시오와 초기 예수회의 선교방법론 : 도시의 중심부를 향하여

4)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김상근, 2006)을 요약 편집했으며, 또한 Mission and Catechesis : Alexandre de Rhodes & Inculturation in 17th century Vietnam(Peter C. Phan, 2005)을 참고했음.

이나시오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었던 <예수회 회헌>은 예수회 소속 사제들의 사명을 “세상의 모든 곳을 향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수회 회헌 622조에는 초기 예수회 선교의 정확한 신학과 우선 원칙이 제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선교사들을 세계 여러 곳으로 파송시킴에 있어, 이들의 사역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보다 위대한 사역과 보다 보편적 선행’이라는 근본 목적을 유념해야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원칙을 주목해야 한다. 세계라는 이 광활한 주님의 포도밭 중에서 우리가 활동한 곳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만약 여러 곳이 선교 후보지로 추천되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중략)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선교의 후보지를 선택함에 있어 인도와 같은 거대한 나라, 중요한 도시, 혹은 대학이 있는 곳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런 곳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선교 후보지(대상)를 선택함에 있어 “인도와 같은 거대한 나라, 중요한 도시 혹은 대학이 있는 곳”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예수회 회헌>의 규정은 초기 예수회 지도자들의 선교방향이 토착문화의 중심부로 들어가 “세상 모든 것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중시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예수회 지도자들의 선교전략은 유럽의 중심 도시와 선교 현장 도시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나시오와 초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선택은 도심을 향한 정면 돌파였다. 1577년의 한 기록에서 초기 예수회의 도시를 향한 과감한 정면 돌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는 회피해야 할 죄인들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무대이며, “영혼을 돕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도심을 향한 정면 돌파에 나타난 이나시오의 리더십은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적 판단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리더십은 흔히 이나시오의 영성으로 불리는 그의 신학 즉, “이 세상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태동한 것이다. 기존의 수도사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둔지로 갔다면, 이나시오는 하나님의 실존체험과 역사하심을 찾아 세상을 향해 찾아 나섰던 인물이었다. 그의 영성은 예수회를 “도시의 수도회”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세계화 시대에 현대화된 도시 호찌민에서 살아가는 한인 선교사들, 수많은 대학이 밀집된 호찌민에서 사역하면서 예수회의 선교적 리더십과 전략은 좋은 모델이 되리라 확신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 3. 상위층이나 지배층 우선 선교원칙

예수회 선교회의 특징은 상위층이나 지배층을 우선 선교하는 원칙을 세웠다. 어느 특정 지역을 선교함에 있어 상위층이나 지배층을 먼저 복음화시킴으로써 선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예수회의 선교정책은 도시, 특별히 선교국가의 수도를 중시하고 국왕이나 황제를 먼저 개종시키는 것에 선교의 우선권을 두는 것으로 유명하다.

1583년부터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명나라 신종(神宗)에게 접근하기 위해 황실에 자명종을 기증한 것이나, 베이징에 선교본부를 마련하기 위해 동부서주 했던 이유는 모두 이런 예수회의 기본적 선교원칙에서 연유한다. 또한 17세기 초반 남부 인도에서 활동한 로베르토 데노빌리(Roberto de Nobili) 선교사가 자신을 “서구에서 온 브라만”이라고 소개하면서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계급에 접근했던 것도 이러한 초기 예수회 선교의 상위층 우선 선교 원칙 때문이었다. 그리고 베트남의 알렉산드르 드 로드는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 불과 4개월 후부터 베트남인의 신앙고백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그는 1년 반 동안 줄곧 언어 훈련에만 매달렸다. 언어 훈련 기간 중에 코친차이나의 영주 응우옌 호앙(1502-1613)의 마지막 첩을 개종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이 여인은 막달아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받고 향후 드 로드의 베트남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막강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 후 통킹의 영주 쩐 쩡에게도 유럽에서 가져 온 시계와 안경을 선물로 바쳐 환심을 사고, 그리스도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알렉산드르 드 로드의 가장 중요한 선교업적은 통킹의 유력한 불교 승려를 개종시킨 사건이었다. 그 승려는 자신의 땅에 성당을 지었는데(1627년 3월 3일), 이것이 통킹 최초의 성당이었다. 그 후로 로드의 사역은 탄력을 받았고, 영주의 여동생과 그 딸을 개종시켰고 영주의 유력한 법관을 개종시켰다.

### III. 동남아시아의 한인 선교 판도(版圖) 변화 측면

#### 1.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출범에 따른 위상 강화

2015년 유럽연합에 견줄 수 있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단일 공동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출범은 21세기 아시아 시대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아시아 중시정책과 맞물려 동남아시아의 위상이 더 높아지며 국가, 도시 간에 더 긴밀한 연결이 예측된다. 그에 따른 선교적 대응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한인 선교사가 가장 집중된 지역

1955년에 최찬영 선교사가 태국에 처음 파송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 한인 선교사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 한인 선교의 집중지역은 태국이었다. 이어 필리핀에 한인선교사가 대거 파송을 받으면서 태국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한인 선교의 양대 산맥이었다. 한국 선교가 그 동안 두 지역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입국과 송금 등의 문제가 쉽지 않았으리라 분석된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도 한인 선교사들이 파송 받았다.

1992년은 동남아시아 한인 선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해이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진영이 사상적 색채가 약화되면서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1992년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설립하게 되고, 이어 1992년 12월에 공산주의 국

가인 베트남과도 정식외교관계를 설립하면서 적성 국가였던 베트남을 기점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한인선교사들이 파송받기 시작했다. 특히 이 4개국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 받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필리핀 한인선교사가 1,000 유닛 이상, 태국 500 유닛, 인도네시아 500 유닛, 캄보디아 500 유닛, 베트남 150 유닛 정도인데, 개인적, 개교회 파송으로 나와 있는 한인선교사를 합치면 훨씬 더 될 것으로 추측된다.

### 3. 동남아시아 한인 선교사의 사역 영역의 편중성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 영역은 크게 열린 지역과 닫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같은 열린 지역은 대부분이 교회개척,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 열린 지역에서도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교회개척, 신학교 사역과 함께 최근에는 유치원, 고아원, 학교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닫힌 지역인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는 공인(비)교회 협력사역과 함께 NGO, 구호사역, 비즈니스, 사회사업, 스포츠, 한인교회, 컴퓨터, 의료 등의 간접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이 동남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대상 영역은 주로 1) 소수민족 2) 빈민층 3) 비주류 4) 어린이 5) 저학력층 6) 대도시 외곽지역 또는 산악지역 등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한인 사역의 3대 특징은 첫째 소수민족, 둘째 빈민층 셋째, 저학력층이며 이들은 모두 비주류에 속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한 계층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한인선교의 역량이 70-80% 이상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지역에서 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한 지 20-30여년이 되었지만 자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총체적인 선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인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집중해 있는데, 한인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면 몇 개의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90% 이상의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은 수도를 중심으로 지방의 대도시에도 분포해 있다. 필리핀은 마닐라를 중심으로 안티폴로, 수빅, 앙겔라스와 민다나오 지역의 다바오, 북부의 바기오 그리고 나가, 비콜지역의 레가스피 등에 분포해 있으며, 태국은 방콕을 중심으로, 북부의 치앙마이, 치앙라이에 집중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족자카르타, 스마랑, 바탕, 발리 등에 분포해 있다. 반면 베트남은 호찌민과 하노이에 거의 99%가 집중해 있다. 베트남 선교의 문제점 중 하나를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선교사가 호찌민과 하노이의 신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사역은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도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서부 고원 지대의 소수 민족 지역, 메콩델타의 빈민 지역 그리고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1개월에 1-2차례 방문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인 선교 사역을 볼 때, 도시 선교, 주종족 선교, 지식층 선교, 중산층 선교로의 판도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 선교(청년대학생)는 도시선교, 주

종족 선교, 지식층 선교, 중산층 선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동남아시아 선교 역사가 50년이 되었고, 필리핀에 장로교단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교육부 인가의 신학대학을 세웠지만 아직도 자립을 할 수 없고, 한국 선교사들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여전히 선교사가 현지 사역자에게 월급을 줘야 유지가 되는 현실이다. 태국과 미얀마도 비슷한 상황이며, 캄보디아는 한국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가 수백 개가 되는데, 한국 선교사가 전원 철수하면 몇 개의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릴지 모를 일이다.

동남아시아에 파송된 엄청난 수의 한인 선교사, 이 지역에 매월 송금되는 천문학적인 선교비. 그러나 자립도(열매)가 가장 낮은 지역 동남아시아. 이 도전 앞에 한인 선교사들은 정직하게, 우리의 사역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사역인지, 무엇을 위한 사역인지.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의 판도 변화를 위해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 손실이 있더라도 새롭게 포맷을 해야 한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 V. 역사적 측면 : 독일, 영국, 미국, 한국의 학생 운동 고찰을 통한 베트남 선교 전망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선교는 젊은이, 즉 대학생들의 기도 모임, 성경공부 모임에 의해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갔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선도적인 움직임마다 대학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교회가 때때로 새롭게 힘을 공급받고 복음화에 추진력을 새롭게 얻은 것은 바로 대학생들의 꿈(vision)과 노력 때문이었다.

독일에서 일어난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운동, 영국의 웨슬레 운동, 캠브리지 7인, 아메리카의 SVM(학생자원자운동) 운동에까지 복음의 확장은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에 의해 끊임없이 생기를 얻게 되었다.

교회 역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가가 교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그의 순회 설교단은 옥스퍼드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마르틴 루터가 그의 감격적인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95개 조의 반박문을 공표한 것은, 당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비텐버그 대학에서 성경학 교수로 재직할 때였다. 종교개혁이 임박하여, 토마스 빌니를 중심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몇 명의 대학생이 헬라어 신약성서와 루터의 저작들을 읽기 위해 화이트호스 숙소에 모였다. 그들 중 몇 명은 대표적인 종교개혁가가 되었고 몇 명은 화형을 당했다. 또 2세기 후에 옥스퍼드의 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는 감리교 운동의 효시가 된 ‘홀리클럽’을 조직했다.

조직화된 학생 주도 단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60년대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에서 헨리 스코걸에 의해 이끌어진 종교회(Religion Society)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기독교학생모임들이 다른 나라에서 산발적으로 생겨났다. 독일의 경건주의의 지도자였던 프랑케(Franke : 1663-1727)로 인해 할레 대학에서 주목할 만한 성경 연구와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 후에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지도자가 된 진젠도르프 백작은 1720년대에 할레대학 사범학부의 소년학생이었다. 그는 비밀기도 전도회를 만들어 겨자씨회(the of the Grain of Mustard Seed)라고 붙였다. 미국의 대학들에서도 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00년대 초에는 선교지향적

인 학생단체들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점차 강력한 대학연합운동으로 발전했다.<sup>5)</sup>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 이면에는 대학생 선교 단체들의 영향이 컸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 단체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인도되었다. 전문화된 선교단체의 훈련 프로그램이 교회에 적용되었고, 수많은 선교 단체의 도서와 성경공부 교재가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 교회에 선교 운동을 일으킨 주체는 바로 선교 지향적인 대학생 선교 단체의 연합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부흥이 필요할 때, 학생들을 선봉으로 하여 독일, 영국, 아메리카 그리고 한국까지 나아가셨다. 이제 성령은 동남아시아의 숨은 거인 베트남으로 나아가고 계신다.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베트남 땅을 성령께서는 분명히 학생들을 선봉으로 기경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지금, 베트남에 젊은이는 넘쳐나는데, 공인교회든 비공인교회든 젊은이 사역에 집중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고, 대학교는 넘쳐나는데, 대학교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대학생 사역에 전념하는 한인 사역자도 드물다.

베트남 교회가 꺾박 가운데 자라나고 있지만, 젊은이 선교, 캠퍼스 선교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베트남 교회에 부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에 있는 한인사역자들이 베트남 교회의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베트남의 젊은이 사역, 캠퍼스 사역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해야 할 것이다.

부흥을 경험한 국가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국가들은 젊은이 선교, 대학생 선교, 캠퍼스에 뜨거운 학생운동이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에서는 청년회가, 캠퍼스에서는 선교 단체가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지난 500년 개신교 역사에서 확연히 드러난 부흥의 법칙이다.

## 나가는 말

젊은 시절(청년대학생)에는 진리,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일어난다. 이것이 청년들의 특징이다. 베트남에는 젊은 인구가 많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많은 대학들이 호찌민시에 설립되었다. 호찌민시는 베트남의 최대도시이며, 대학교가 가장 많이 집중해 있는 도시이다. 한인 선교사들도 100 유닛 이상이 호찌민시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 선교(캠퍼스 선교, 대학생 선교)를 메인사역으로 설정하고 집중하는 선교사는 많지 않다.

베트남 복음화의 척도는 젊은이 선교(대학생) 운동에 달려 있다. 젊은이 선교는 베트남 선교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한인 사역자들이 젊은이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

또한 젊은이 선교, 캠퍼스 선교의 특징은 연합 운동이다. 유럽, 미국, 한국의 역사에서도 확증

5) 피터 로만, IVF 역사와 정신, 한국기독교학생회 자료개발부, 1999, pp.13-14.

이 되듯 젊은이 선교는 연합할 때 힘을 더 크게 얻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베트남의 젊은이를 섬기는 한인 사역자들의 연합 운동은 이 땅에 선교 운동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는 한인 선교사들의 연합 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둘째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2개의 베트남 기독교 학생 단체의 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교회에 힘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 젊은이를 섬기는 한인 사역자의 연합 운동은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1단계는 네트워크 형성이다. 2단계는 1년에 1-2회 개최하는 포럼이다. 3단계는 훈련사역 또는 수련회를 공동개최하는 것이다. 4단계는 팀을 구성하여 젊은이 선교를 계획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재정도 부분적으로 함께 공유(사역비: Semi pooling)하며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지향적인 연합 운동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베트남 교회가 동남아시아를 책임지는 선교하는 교회로 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질문한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같은 기쁨과 기대는 우리를 연합하게 할 것이다. 선교지에서 홀로 서 있다는 것은 여간 애처로운 일이 아니다. 참된 기대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함께 모이기 마련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형제, 동역자 관계라면, 무지개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빛깔을 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베트남 선교는 ‘젊은이 사역’과 ‘연합 운동’에 의해 앞당겨질 것이다.

## 참고 자료

1. 김상근,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 한들출판사, 2006.
2. 노스코트 파킨스, 동양과 서양, 김영사, 2011.
3. 윤한열,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 분석을 통한 선교 전략, 동남아 선교 뉴스레터, 2008년 5월호
4. 피터 로만, IVF 역사와 정신, 한국기독교학생회 자료개발부, 1999.
5. 위키피디아 온라인 백과사전.
6. DAN TRI 신문, 2011년 5월 19일자.
7. 중앙일보, 2006년 10월 20일자.
8. Peter C. Phan, Mission and Catechesis : Alexandre de Rhodes & Inculturation in 17th century Vietnam, ORBIS BOOKS, 2005.

## 베트남 젊은이들을 위한 학사 공동체 사역

-K-MAC 학사 공동체 사역을 중심으로-

김형일<sup>6)</sup>

### I. 들어가는 말

공동체의 유형을 보통 사회(Society)와 공동체(Community)로 크게 구분하여 표현한다. 공동체와 사회의 구분은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는 근본 동기의 차이에 기인한다. 인간의 신념, 자연적 성정, 그리고 양심에서 나타나는 본질의지가 일치하는 근본 동기로 나타날 때에는 공동체가 형성된다.<sup>7)</sup> 따라서 공동체는 공동의 삶 속에서 물질이든 생각이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구조적으로는 적어도 모든 이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기원은 당연히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계약에 의한 공동체가 구약 예언자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 계약의 공동체가 된 것인데 초대 교회가 이 새 공동체의 기초 위에 그 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초대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고 사귀며 일심으로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사욕을 멀리함으로써 공동생활의 이념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 생활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새 계약자로서 구별된 생활을 한다는 것과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인지의 신앙에 기인한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공동생활을 이념으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며, 나아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구현하려 했던 작은 교회 공동체였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오늘날 베트남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제자도의 실현 장소로 요구되는 것이 공동체이다. 이러한 필요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배움과 신앙의 공동체로서 젊은이들에게 학사 공동체가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살펴 볼 베트남의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들을 볼 때에 학사 공동체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역의 당위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한다.

### II. 학사 공동체 사역의 필요성

6) 김형일 선교사는 2010년 3월 1일 베트남에 도착하여 베트남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며 캠퍼스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7) 이병호, 그리스도교와 공동체, 신학전망, 1989년, 여름호, p.15.

8) 은준관, 신약성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p.101.

### 1. 호찌민시에 집중되는 대학 그리고 학생들

베트남은 1985년 도이머이 정책을 수립한 이후, 쉽 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산업 성장을 위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국제 경제의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종하여 올해에 비해 소폭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sup>9)</sup>

특히 호찌민시는 경제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많은 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호찌민시에 제조 관련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역을 위한 수, 출입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생산 현장에서 무역을 위한 선박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운송비 절감이라는 부분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국회사는 물론 외국계 회사들까지 지역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호찌민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체들이 집중되면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예상하게 되는데,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것이다. 모든 기업체는 현장 근로자와 그들을 관리, 감독, 현장 업무 책임을 위한 고학력의 고급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로 호찌민시는 많은 대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을 배출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고 부유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호찌민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현재 호찌민시 내에 많은 공립 대학들이 신설되었으며 사립 대학들과 전문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내를 중심으로 대학들의 증가는 인근 대학 지역인 투득 지역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대학과 대학생의 집중 현상은 남부 지역의 균등한 지역적 발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마다 지방의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호찌민시에 오게 된다. 이 많은 학생들은 거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화된 도시에서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거처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거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 2. 학사 공동체 생활의 유익

학사 공동체는 공동체 훈련의 장으로 기독교 대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유익함을 가지고 있다.

#### 1) 소그룹을 경험하는 장이다.

활동하기에 용이한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없으며 소그룹 모임과 활동이 편리하다. 대부분 베트남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모임은 다수가 모이는 대그룹인 경우가 많다. 소그룹을 경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 리더십을 발휘하며 경험할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리더십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발견 및 발전 시킬

9) LÊ THANH, Kinh tế Việt Nam 2014, "Tuổi Trẻ", 2013년 10월 16일.

수 있다. 공동체는 작은 사회와 같다.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된 생활과 삶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생활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럿이 함께 모여서 다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다양한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다.

### 3) 섬김과 나눔을 배운다.

공동체의 삶은 혈연으로 묶인 가족과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가족은 부모님의 일방적 희생과 섬김을 통해 가족 전체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학사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섬기며 자신의 삶과 생활, 재정을 드러내고 나누려 할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만약 공동체에서 자신의 영역을 고집하고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그 구성원으로 인해 나머지 구성원들도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모두가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직시하고 실천하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 4)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된다.

교회 생활은 다양한 동기에서 시작된다. 가족을 통해, 가족 안에서, 친구를 통하여, 또는 스스로 결단하여 교회에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하다. 하지만 신앙 생활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찬양 시간을 갖고 기도회를 통하여 신앙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된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경우를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3. 복음 전도 제한성의 극복의 장

베트남의 종교 분포 중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이다. 이러한 종교 인구 분포는 장년층만이 아닌 청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00명이 정원인 한 대학 학과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1~2명 정도이다.

베트남은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포교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 증인이 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베트남 기독교 청년들의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 호찌민 시내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다. 그 교회들은 매주 300-500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있다. 인원으로 보았을 때는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다. 물론 건물도 그 만큼의 규모를 자랑할 만한 정도다. 교회의 규모와 주일 교회 출석 성도 수만을 보았을 때 베트남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회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도의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주일 교회 출석을 통한 모습 외엔 자신의 삶에서의 변화와 성화된 삶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이 대학을 가기위해 또는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오는 젊은이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며 호찌민에 집이 있거나 호찌민이 고향인 학

생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지방에서 올라온 기독교 젊은이들의 현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베트남 교회와 복음화에 대해 교회 교육의 부재는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나 포교 활동에 규제가 있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화 전략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학사 공동체이다. 특히 베트남과 같이 닫혀진 지역 안에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학사 공동체사역의 실제

#### 1. K-MAC 학사 공동체 운영 방법

K-MAC에서는 현재 두 개의 학사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두 학사 모두 기독교 학생들의 확대와 기독교적 세계관 확립을 통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학사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법대 학생들로 구성된 로댐 하우스,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된 비전 팩토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학사의 입사 자격 조건

현재 K-MAC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학사는 다음과 같은 입사 자격 조건을 가진다. 학년 제한에 있어서는 두 학사 모두 1.2학년 중심<sup>10)</sup>으로 운영하고 있다.

- 호찌민 법학 대학교 학생 또는 경제 법대 학생이어야 한다.(로댐하우스)
- 호찌민시내 4년제 대학생이어야 한다.(비전 팩토리)
-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 학사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학사 생활 규칙 준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학사내외의 활동과 그 외 훈련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2) 학사 공동체 입사 절차

입사 절차로는 학사에 입사 조건을 갖추고 입사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 본인의 동의가 되면 1차 면접이 이루어진다. 1차 면접은 학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하게 되며 면접 시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묻게 된다. 1차 면접 후 팀 회의를 통하여 학사 입사자에 대한 입사 여부를 논의 하게 된다. 팀 회의를 통하여 입사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사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면접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입사 합격 통보를 하게 된다.

입사가 결정된 학생은 입사 날짜를 정하고 정한 날에 입사하게 된다. 입사 후 방 배정 및 생활에 관계된 것들은 학사 내의 방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3) 학사 공동체 구조

10) 입학생 학년을 1.2학년 중심으로 하는 것은 3-4학년일 경우 1년 이하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며 그 기간동안 공동체 생활을 통한 성장의 기대를 가질 수 없으며 저학년으로 입사했을 시 2-3년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영성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사의 구조는 모든 학사 공동체가 속해 있는 팀이 있고 팀 안에서 모든 활동 및 운영관련 재정 공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사 구성을 위한 초기 활동 -학사 위치 선정, 임대 관련 등-은 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

팀 안에 각 학사를 담당하는 담당 사역자가 있다. 담당 사역자는 학사 공동체에 대한 모든 활동과 운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학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즉 팀에서는 학사 담당자에게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학사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 및 권한은 담당자에게 있다. 또한 학사 담당자는 학사생들의 생활(일반, 신앙)을 돕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

학사 담당자를 도와 학사를 이끄는 방장이 있다. 방장은 학사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팀 담당자의 전달 사항 등을 전달 및 공지하며 학사 내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학사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 4) 학사 공동체 위치 및 거주 조건

베트남은 아직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는 나라이다. 지정된 장소 외에서 활동 및 집회를 갖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이 자국민을 만나는 것은 더욱 예민한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학사 공동체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 현지인 밀집 지역은 피해야 한다.

: 호찌민시라 하여도 외국인 거주가 적고 외국인 왕래도 적은 현지인이 밀집해 있는 곳은 적합하지 않다. 학사생들을 만나기 위한 잦은 왕래는 현지인들에게 충분히 주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며 왕래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 학사가 현지인 주거 지역의 중심이거나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하는 것은 피하고자 했다. 사역자나 학생들의 왕래가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한다.

- 학생들의 통학을 고려해야 한다.

: 학사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좋은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학사생들의 학교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학사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 생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 베트남 학생들이 호찌민시에서 유학생활 하는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생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 고향에서 생활하는 환경과 너무 동떨어진 다른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생활과 삶에 대하여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생활 격차를 최소한으로 느끼되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게 하고자 했다.

-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 학사 임대와 관련된 운영은 팀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제외한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는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부분 즉, 관리비, 주차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등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학사를 임대할 때 임대료 외에 공과금 등의 재정적인 부분도 감안하여 선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조건들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사의 위치 및 거주 환경으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결정하게 되었다. 물론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넓은 공간 및 재정적 부담이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모임과 활동에 대한 보안상 노출이 있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는 외국인 왕래에 대한 외부의 거부감이 적고 보안상 노출의 위험이 적다. 또한 아파트는 도로 및 교통이 이미 확보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때문에 모임 및 활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로댐하우스는 4군에 위치한 QUOC CUONG GIA LAI 아파트에 있고, 비전팩토리는 Nha Be에 위치한 Hoang Anh An Tien 아파트에 있다.

## 2. K-MAC 학사 공동체 소개

### 1) 로댐 하우스

로댐 하우스(Lawdam House)의 명칭은 법의 뜻을 가진 'Law'와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댐의 뜻을 가진 'Dam'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다. 호찌민국립법학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사의 성격을 드러내는 명칭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법대생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회의 법을 잘 적용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천하는 일꾼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문을 열었다.

로댐 하우스는 법대 학생들만을 위한 학사이다. 법학대학이라는 한 대학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들이 베트남 사회 곳곳에서 살아갈 때에 기독 법조인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이들의 졸업 후 진로는 대부분 법에 관계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 법률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된다. 즉 사회에서 법 관련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부에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한다면 사회에서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라 확신한다.

로댐하우스는 2011년 후반기부터 설립 계획을 추진하였다. 학사에 들어 올 대상의 구분과 입사 조건에 대한 부분, 관리 및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학사의 위치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와 외국인 왕래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한 거주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1월 10일 로댐 하우스 설립 예배를 드리며 초기 3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사를 시작했다.

로댐하우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 모임을 갖는다. 정기 모임 시간에는 한 주간의 생활과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고 찬양과 성경공부를 한다. 성경공부 교재는 학기마다 팀에서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 모임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로 하고 있다.

또한 주 일회 자체적으로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이 시간은 서로에 대하여 중보하는 시간으로 함께 찬양하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조금 더 열고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시간을 갖는다.

그 외에 성경 읽기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매일 성경으로 개인 경건생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역자가 주기적으로 학생들과의 개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과 친밀함을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호찌민법학대학 내에 학교를 위한 기도모임이 학사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임은 학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근거리에 위치한 학사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4

명의 학생들이 모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학사를 활용하고 있다.

## 2) 비전 팩토리

‘비전 팩토리(Vision Factory)’는 ‘학생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꿈’, ‘이상’의 뜻을 가진 ‘Vision’과 ‘쉽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공장’이란 뜻을 가진 ‘Factory’의 합성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뜻이다. 즉 학사 설립의 목적에서와 같이 기독교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이상과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실현시켜 나가길 소망하는 학사생들이 되기를 바라며 학사 공동체 문을 열었다.

비전 팩토리는 로댐 하우스와 달리 여러 개의 일반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사는 사역의 집중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대상의 폭이 좁다는 약점이 있다. 때문에 여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사라 다양한 학사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전 팩토리의 학생들은 학교와 전공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명확해진다면 학교 생활은 물론 졸업 후에도 자신의 영역에서 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비전 팩토리는 2012년 팀에서 이루어진 신앙 훈련 과정 중에서 새로운 학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반기 훈련을 마친 후, 팀내에서 설립을 결정하고 로댐 하우스와 같이 학사 설립에 대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대상 선정과 학사의 위치를 결정하고 2013년 2월 21일 두 번째 학사인 비전 팩토리를 초기 5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비전 팩토리의 생활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모임을 갖는다. 이 시간에 한 주의 삶과 문제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과 성경공부의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사용하는 교재 역시 팀에서 결정하여 두 학사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자체 활동으로 매주 일회 기도회를 하고 학교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제공되는 매일 성경으로 개인 경건 생활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매주 담당 사역자 가정과 식탁교제를 통하여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

## IV. 나가는 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이 은사는 베트남의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하는 수많은 학생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트남 땅에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 물고기를 트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젊은이를 깨우기 위해 더욱 달려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1. 이병호, 그리스도교와 공동체, 신학전망, 1989년, 여름호.
2. 은준관, 신약성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3. 윤한열, 베트남에서의 대학생 사역, 인도차이나 연구 제3호, 메콩개발기구연구소 편, 서울: 선교타임즈, 2010.
4. Tuổi Trẻ신문, 2013년 10월 16일자.

## 훈련 사역을 통한 베트남 젊은이 선교

박보갑<sup>11)</sup>

### I. 들어가는 말

베트남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 이들은 베트남의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 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 개인이 구원얻는 기쁨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체를 바라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복음적으로 닫혀있는 지역이기에 자유롭게 선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시대에 베트남 젊은이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상황과 현실에서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에게 관심 갖고 집중하여 복음 전할 선교사, 베트남 목회자, 성도들도 더 필요하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바로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무조건 예수 믿는 젊은이라고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이며 충성된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지는 못한다. 윌터 A. 헨릭슨은 “태어날 때부터 제자인 사람은 없으며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즉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sup>12)</sup> 그러므로 베트남 젊은이들에 대한 훈련사역은 베트남 젊은이 선교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II. 베트남 기독교 대학생들의 현주소

#### 1.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대학생들의 훈련의 기회

베트남에서 주님을 믿는 젊은이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학업, 진로 문제와 복음 증거라는 것을 결부시켜 젊은이로서 비전을 품고 생활하는 것 같지 않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기독교 젊은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이유는 베트남 교회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담임목사님 한 분이 모든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장년 중심의 목회가 이루어지며 젊은이들을 돌아볼 여력이 부족하다. 청년회를 전담할 목회자가 없다. 설령 부교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젊은이들만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없기에 교회에서 청년들은 체

11) 박보갑 선교사는 2010년 베트남에 도착하여, 베트남 대학에서 강의하며 캠퍼스 사역에 비전을 갖고 섬기고 있다.

12) 훈련으로 되는 제자(네비게이트, 윌터 A. 헨릭슨, 1980)

계적으로 양육과 훈련받을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토요일 저녁 또는 주일에 청년회 모임을 갖는다. 그 모임은 대개 소그룹으로 운영되지만 10명 이상의 대그룹과 같은 수준이며, 친교의 목적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1년에 한 두 번 젊은이들 전체 수련회가 있지만 그 외의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의 시간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다니는 캠퍼스와 직장에서의 전도에 대한 마음, 비전을 갖는 것이 힘들 것이다.

## 2. 선교 단체를 통한 기독교 대학생들의 훈련의 기회

우리나라와 같이 베트남에도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하는 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된 나라이기에 선교 단체들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마음껏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젊은이들을 향한 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조직이 젊은이들을 선교하기에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헌신하여 섬기는 간사들이 많지 않기에 젊은이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선교하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베트남 젊은이들이 그에 맞는 적절한 훈련을 받을 기회들이 많지 않다.

## 3. 전문 사역자의 부족

베트남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젊은이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젊은이들에게 관심 갖고 돌보며 학사를 운영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비전을 제시하며 생각을 일깨우며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전문 사역자는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이 있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선교사는 드물다. 훈련을 받을 자들은 많으나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 Ⅲ. 베트남 기독교 대학생들을 위한 훈련 사역의 필요성

## 1. 예수님의 사역 모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의 구원, 즉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했다. 단지 한 사람, 한 민족, 한 국가, 한 세대만이 아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영적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에 집중하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고 또 그 목적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투자하셨고 훈련시키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간 동안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면 바로 제자들을 세워 훈련시키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훈련의 대가이셨지만 만 삼년이란 세월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서는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8:19에서 주님께서서는 제자 삼는 일을 통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훈련받고 사명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 전 생애를 바쳐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 2. 훈련받은 자의 변화

어떤 훈련이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그에 맞는 적절한 과정을 잘 진행해 나갈 때 훈련 받는 자에게 좋은 변화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과 환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훈련받은 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자신의 임무, 사명에 집중하며 이루어내는 힘이 있다. 훈련받은 자는 훈련받지 않은 자와 질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수행하는 능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

금메달은 열심히 노력한 선수한테로 돌아간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한 사람이다. 수시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방해 거리에 대해 단호히 “안 돼”라고 말한 사람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굳은 결심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쉬지 않고 전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sup>13)</sup>

훈련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군인일 것이다. 군 입대 전의 모습과 군 입대 후에 강도 높은 훈련은 그 사람을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만든다.

군대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훈련은 군인들에게 전투대형을 익히게 해주며, 무기에 익숙하게 해주고, 심리적으로는 협력·규율·자제심을 길러준다. 교란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지휘자의 통제와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이 훈련이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3년이란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상황, 사람,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제자들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겨지게 되었다. 비록 고향, 외모, 나이, 성격, 직업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갔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에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기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으며 지금에 와서는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다르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젊은이들도 훈련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을 제시하며 가르치며, 훈련시키면 그들의 생각, 행동, 인격, 삶이 바뀔 것이다.

K-MAC에서는 지금까지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 4번의 단계별 훈련을 해왔다.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학생들에게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

13) 훈련으로 되는 제자(네비게이토, 윌터 A. 헨릭슨, 1980)

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 훈련 과정을 통해, 사랑의 섬김을 경험하며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들의 조그만 변화는 주위 지체들에게도 변화를 주며 도전을 주고 있다. 그들의 변화는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 캠퍼스, 직장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 3. 훈련하는 자가 누리는 유익함

훈련을 할 때 훈련 받는 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자도 다양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훈련시키는 만큼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캠퍼스 복음화에 관심도 헌신도 없으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외치고 강의한다 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변할 리는 없다. 훈련이 일련의 과정을 완벽히 진행했다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훈련자의 모습, 행동, 태도, 삶이 어우러져야 훈련받는 자는 훈련 과정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훈련자는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고, 훈련하면서 자신을 더 살피게 되며 더 좋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함으로 자신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유익이 있다.

그리고 훈련자로서 베트남어 진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베트남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다. 지성인인 베트남 젊은이들과 만나 단순히 일상 생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며 섬기기 때문이다. 또한 신앙과 관련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담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잘 섬기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소화하고 해내는 고된 작업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반복하여 하면서 부담감에서 자유함, 부족함에서 점점 채워지는 유익을 맛보게 된다.

또한 훈련받는 베트남 젊은이들의 조그만 변화, 섬김은 훈련자들에게 큰 기쁨, 위로, 힘을 준다. 그리고 훈련받은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훈련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베트남에서의 젊은이들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그들은 젊은이 선교를 위한 우리들의 귀한 동역자들이 된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스크럼을 짜고 갈 동역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른다.

## IV. 훈련 사역의 실제

K-MAC은 훈련의 중요성을 알기에 기도하며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기독 대학생들이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 재생산을 위해 각 단계별 훈련을 하고 있다.

## 1. 훈련 기간

2011년 11월 첫 훈련을 시작으로 1년에 두 번 학기마다 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 기간은 훈련 단계에 따라 다르며 매 학기 캠퍼스 상황에 따라 변화있게 운영되었다. 지금까지 실시한 훈련은 4주, 6주, 1박 2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2. 대상

훈련 대상자들은 매학기 팀사역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학사생들과 사역자 가정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그 외에 베트남 기독교 학생들이라면 신청서를 받고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 훈련 받은 학생들은 주로 학사생, 사역자 가정 공동체 지체,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대학교 학생들 등이었다. 이미 훈련 받은 학생들의 소개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 3. K-MAC 단계별 훈련 과정과 내용

### 1) BCT(Basic Christianity Training: 기초신앙훈련)

처음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신앙 경력에 관계없이 이 단계의 훈련부터 시작하게 된다. 학생들의 기초 신앙을 점검하며, 학사생들의 경우는 동일한 훈련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함을 목표로 실시된다. 4개의 주제 강의를 이루어지는데 자아상, 구원론, 경건생활, 그리스도인의 대학 생활 등을 다룬다. 모든 강의는 사역자들이 각자 주제를 나눠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베트남 동역자가 맞게 되는 강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대학 생활과 같은 강의는 사역자의 훈련을 받았던 평신도가 진행하고 있다.) 첫 단계 훈련이어서 주로 신입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 2) CLT(Campus Leadership Training: 캠퍼스 리더십훈련)

BCT 훈련을 마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훈련 단계이다. 학생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학사생들은 이 훈련을 통해 공동체가 영성 훈련의 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인지하게 된다. 이 훈련 역시 주제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 묵상의 실제(큐티실습), 주되심 1, 학생 운동과 세계 복음화 1,2 등의 강의를 실시한다. 사역자들이 각 주제별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한다.

### 3) GLT 1(Small Group Leadership Training: 소그룹 리더훈련)

캠퍼스 복음화와 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CLT 훈련을 마친 학생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두 단계에 훈련을 마친 학생들 중에 선별하여 훈련에 참가하게 한다. 앞에서 실시한 훈련과는 다르게 이 단계 훈련부터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많이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주되심과 공동체에 대한 주제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 성경공부 실습, 캠퍼스 기도모임 조직의 실제 등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샵 형태로 진행된다.

4) GLT 2(Small Group Leadership Training: 소그룹 리더훈련)

3단계까지의 훈련을 모두 마친 학생들 중에 캠퍼스 기도 모임을 조직하여 헌신할 학생들 내지는 사역자로 동참할 뜻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 진행된다. 이 훈련은 다른 훈련과는 다르게 매주 진행되며, 학생 리더들이 소그룹을 직접 운영하기에 소그룹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학기는 ‘빌립보서 (IVP)’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며, ‘소그룹 리더 핸드북’을 읽고 소그룹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질 등을 토론하고 있다. 계속되는 다음 학기 모임을 통해 성경 연구 심화 과정과 선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대학에 기도모임 조직 및 인도해 나갈 것이다. (법대는 이미 기도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5) 기타

그 외 훈련 기간 중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outing과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다. outing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여, 그 동안 영화감상을 함께 하며 기독 대학생으로서 나눔을 갖기도 했다. 매번 수료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소감문을 나누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지며 훈련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모든 훈련 시간들이 훈련을 받는 학생들과 진행하는 사역자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훈련이 끝난 후에는 사역자들만의 평가회 시간도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훈련 평가를 통해 그 동안의 훈련이 계속해서 진화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V. 나가는 말

제자를 낳고 배가시키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신약 성경의 비전이며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적 배가를 통해서 인간을 번성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적 재산을 통해서 영적 세대가 증식되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필생의 사명’을 제시할 때 마음을 가졌던 비전임이 분명하다. “또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네 세대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영적 재생산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영적 세대를 이어 갈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올바르게 훈련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영적 재생산의 과정이 느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 훈련 과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14)

베트남의 젊은이 선교를 위해서도 비전을 갖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눈물과 땀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밀빠진 독에 물붓기’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 삶이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14) 훈련으로 되는 제자(네비게이트, 윌터 A. 헨릭슨, 1980)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에게 집중해 훈련시켜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베트남 젊은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의 본을 좇아 인내하고, 기다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콩나물 시루에 구멍처럼 물을 부을 때마다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듯 기독 대학생들의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젊은이 선교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에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사역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기에 실망하지 않고 더디지만 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 효과적인 베트남 젊은이 선교를 위한 대학 강의 사역

-베트남 호찌민시 대학 한국학과 강의를 중심으로-

임시연<sup>15)</sup>

### I. 들어가는 말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는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선교사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복음전파가 불가능하기에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사역이 요구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권에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선교 현장에서도 이를 힘입어 사역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가지는 단기 선교 사역팀들의 사역 내용이 문화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한류의 영향일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 사역자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을 사역의 수단으로 삼게 되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인들의 한국어 학습의 욕구도 함께 강해지며 해마다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류의 영향과 더불어 해마다 베트남 경제의 한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학과 졸업생들의 인기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신입생들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한국학과의 선호도가 단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는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각 대학에 정식 학과로 한국학과가 인가를 받으며, 한국어 교육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인 교원의 수급이 여의치 않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코이카(KOICA) 단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현지인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다시 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있고, 각 대학의 한국학과 개설이 많아지면서, 각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한국인 강사를 더 많이 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찌민시에서는 몇몇 선교사들이 각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통해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시도하게 되었다.

필자는 10년 동안 베트남 캠퍼스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며, 베트남 캠퍼스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활용했는지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II. 베트남 호찌민시의 캠퍼스 상황

#### 1. 정치적 상황

베트남의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에게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상 교육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 강단에서 어떤 내용의 강의를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민감하다. 매 학기 각 학부장은 학생들-청년 당원들-을 통해 각 강의의 내용에 대해 사상성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교원일 경우 단순히

15) 임시연 선교사는 1999년 3월 11일 GMS 선교사로 베트남에 도착하여 베트남어 연수 후 2003년부터 호찌민시 국가 인문사회과학대학교와 호찌민시 외국어정보대학교에서 강의하며 캠퍼스(청년대학생)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수업의 질을 떠나 구체적인 것을 학생들이 학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통제를 받게 된다.

### 1) 강의의 통제

강의 시간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기독교 문서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제약이 따른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종교 때문이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학교에서 강의 내용과 교원의 신분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일이라 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 2) 모임의 통제

베트남 정부는 차세대 지도자로 자랄 대학생들의 모임에 무척이나 민감하다. 그리하여 학교에서의 정식 모임은 각 대학별 청년당원들이 조직하는 것 외에는 다양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 작은 동아리 모임이라도 학과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반드시 지도 교원이 함께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선교사가 동아리 모임을 조직한다고 해도, 그 모임을 통해 복음 전파를 시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르게 된다.

### 3) 출입의 통제

외국인들이 베트남어 연수를 하기 위한 몇몇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아주 엄격히 통제한다. 학교 정문을 지나면 어김없이 수위에게 무엇 때문에 캠퍼스를 방문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내 여러 가지 분실 사고가 생기면서 최근 들어서는 각 대학들이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교문 출입을 통제하고, 낯선 사람이라면 방문 목적과 방문지를 꼭 묻곤 한다.

## 2. 물리적 상황

### 1) 열악한 캠퍼스

베트남 호찌민시 대부분의 대학들은 두 개 이상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국가 대학교의 경우 최근 들어 호찌민시 중심가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이 한창인지라, 대학 행정본부와 대학원은 호찌민시에, 학부는 시 외곽으로 분산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 특히 신입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캠퍼스를 찾아야만 한다.

또한 역사가 짧은 사립대학교의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캠퍼스가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호찌민시 외국어 정보 대학교의 경우만 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캠퍼스를 한곳에 모은지 얼마 안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의실이 부족하여 1-2군데 캠퍼스가 더 있다. 흥방대학교의 경우도 최근 2-3년 사이에 각 단과 대학별로 잦은 캠퍼스 이동이 있었다.

이처럼 캠퍼스의 이동이 잦다 보니, 자연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학생 식당과 같은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캠퍼스의 상황은 대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모임 장소를 찾는 데도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각 대학은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강의실을 폐쇄한다. 수업 시간외에 강의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학교의 통제 아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모든 강의실이 물리적인 환경 면에서 개방되어 있다. 방음 시설은 전혀 없으며, 냉방 시설이 없는지라 창문은 닫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강의 내용이나 교수 내용 등을 보호받을 수 없고,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캠퍼스의 물리적 상황들은 기독 학생모임이라도 만들려면, 캠퍼스 내에서는 마땅한 모임 장소를 찾을 수가 없다. 만약 모임을 가진다 하더라도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

## 2) 교원 수급의 불안정

베트남에서 교원들은 가장 낮은 임금을 수혜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질적인 경제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많은 교원들이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거나, 강의는 단지 부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별히 한국어 교원의 경우, 베트남 현지인들은 학교 강사료로 생활을 하기 보다는 통역이나,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며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수업의 휴강, 결강이 잦은 편이다.

또한 아직은 한국어 교원들의 연령이 그리 높지 않기에 유학 등의 사유로 매학기 많은 교원이 교체된다. 한국인 교원의 경우도 대부분 코이카(KOICA) 단원의 봉사자들이기에 2년의 임기를 마치면 교체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사정으로 한 학기 혹은 1년을 마치고 귀국하는 단원들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도 짧아진 기간만큼 끈끈함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 Ⅲ. 한국어 교육을 통한 사역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1. 캠퍼스 내에서의 강의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를 시도하기 위해 대상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는 일은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허락된 강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며,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함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기에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었다.

## 2. 불신자를 위한 소그룹 운영

강의 시간을 통한 학생들과의 만남은 일대 다수였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한 다거나,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치 못했다. 또한 캠퍼스의 물리적 상황상 모임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소그룹을 모으고 가정을 개방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신자였기에 한국어 교육을 다수를 위해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 1) 한국어 동아리

주로 고학년(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한국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베트남을 비교하며 생각해 보는 모임으로 직접적인 복음 전도와는 거리를 둔 모임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정을 개방함으로써 기독교인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학교 강의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비디오나 문서 자료<sup>16)</sup> 등을 통해 복음의 간접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자 했다.

## 2) 일대일 전도 성경공부

강의 시간을 통해 개인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 또한, 한국어 공부에 열의를 가지고 더 배우고자 찾아오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전도 성경공부로 이끌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공부하며<sup>17)</sup>, 스스로 기독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기독학생 모임

한국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매학년마다 1-2명의 기신자들이 있었다. 필자는 전략상 매학기 1학년 수업을 담당하여, 학생들의 신변 정보를 눈여겨 확인했었다. 그리하여 기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양육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1) 한국어반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말하기 듣기 등을 기독교 문서 자료나, 비디오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시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모임도 가지며, 기독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모임을 했다.

### 2) 기도, 성경 공부 모임

기독 학생들에게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배제하고 소그룹을 운영하였다. 베트남어로 성경공부를 하고, 학과와 학교, 나아가 베트남 청년 대학생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학생들을 양육하는 모임이었다. 각 학년마다 1-2명의 기독학생들이 있었기에 1주일에 한 번 4-6명 정도의 학생이 모여 소그룹을 진행했다.

## IV. 한국어 교육 사역에 대한 제언

### 1. 한국어 교육 사역시 장점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선교사역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선교사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 1) 선교사의 신분 확보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한국어 교원이라는 명분은 선교사가 신분의 안정성을 가지기에 손쉬운 것이었다. 국가 대학의 경우 정식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1년의 교원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 인해 비자 문제를 해결받기도 했다.

#### 2) 한국어를 매개로 접촉 용이

선교의 대상인 청년대학생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캠퍼스다. 그러나 몇 대학을 제외

16) 비디오 자료로는 '너는 특별하단다' 를 비롯한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는 DVD를 이용했었고, 문서 자료로는 전도용 소책자(IVP)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17) 일대일 제자훈련(두란노), one to one(IVP), 행복에의 초대(IVP) 등을 교재로 이용하였다.

하고 호찌민시에서는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상당한데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제한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사역의 여유와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 2. 한국어 교육 사역시 야기되는 문제점

### 1)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인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상실

한국인 교원들의 갑작스런 귀국과 베트남인 교원의 유학 등으로 강의의 공백이 자주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기초 계획된 강의보다 한 두 학년을 더 맡게 되는 일이 매학기 허다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보다는 한국어 수업 준비에 쫓기는 시간들이 있었다.<sup>18)</sup>

### 2) 가르치는 자로 범하는 과오

가르치는 자로 학생들 앞에 서다보면 내 것을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문화 예절 등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베트남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고, 베트남어 사용보다는 한국어 사용이 잦아지면서 베트남어 능력도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소위 티칭 콤플렉스(Teaching Complex)라는 것으로 베트남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려기 보다는 학생들을 통해 베트남을 쉽게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잘못이 빈번했었다.

### 3) 관계의 한계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의 틀을 깨는 것이 쉽지 않다. 학생들에게 교사의 입장이 아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또한 복음을 소개하기까지는 쉬웠지만 학생이 실제 자신의 신앙고백을 하기에는 교사와의 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이 선생님이기에 감히 거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경험했다.<sup>19)</sup>

## 3.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선교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실제 사역에 있어 범하기 쉬운 여러 잘못들이 있다. 이것을 필자는 위에서 세 가지 정도로 서술해 보았다. 이는 활용적인 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를 한다면 한국어 교육을 사역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베트남인의 정서상<sup>20)</sup> 한국어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자로 선교를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선교에 대해 조동진 박사는 서구 선교 세력들의 '자국문화이식' 선교 정

18) 1학년 말하기 수업을 제외하고 학교측에서 매학기 다른 과목의 강의를 맡김으로 개인적으로 수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다른 과목을 맡게 된 이유는 2장에서 말한 베트남 대학의 교원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19) 속단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몇몇 학생들과 불신자 성경공부를 하며 영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서 알게 된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20) 베트남 사람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하다.

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20세기 식민주의 서구 선교의 모방이라고 한다. 선교지에 한국 문화가 심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고까지 한다.<sup>21)</sup>

그러나 선교사들이 한국어 교육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지혜롭게 이용한다면,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좀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의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국어 교육은 단지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 1)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선교사는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복음 전파자라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전문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주객을 전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쉽다. 필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을 수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교단에 섰지만, 주위 환경들에 눌러 오랫동안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복음 전파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사역에 비로소 용기를 내게 되었다.

#### 2) 베트남에 대한 꾸준한 학습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복음이 아닌 한국에 대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익숙해지면서,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 학습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생겼다.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칠수록 가르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만큼 베트남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아는 만큼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가 컸다. 섬기는 자로서 베트남에 대한 학습은 수업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다.

한국어 교육을 사역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어 교수자이자 베트남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할 것이다.

#### 3) 청년 대학생들의 필요 연구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도 다양하다. 선교지에서의 선교대상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며,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들의 성향과 요구가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학습 요구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전도 대상자로서 베트남 학생들의 필요도 변하고 있다. 선교사는 단순한 학습 도우미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생의 상담자로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필요시되고 있다. 또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찾는 것도 선교사들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청년 대학생들의 필요를 연구하여,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자료의 만족을 추구하기 보다 청년 대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낮아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 4) 전문가로서의 연구

한국어 교수자라면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적인 면에서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파, 사역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선교사는 일반 교수자보다 더욱 깊고, 다양한 교수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성

21) 2008년 4월 VDF(베트남 한인선교사 협의회) 선교포럼시 조동진 박사의 발제응답에서 인용

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재를 선택하는 안목, 교수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스도인 소그룹의 모델을 활용한 수업 방법 등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일을 바탕으로 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 V. 나가는 말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제사장이다.(롬15:16)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은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 견고해지리라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충성스런 청지기로서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베트남 땅에 더욱 많아지길 소망한다.

##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 분석을 통한 선교 전략<sup>22)</sup>

윤한열<sup>23)</sup>

### I. 들어가는 말

선교는 한 사람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sup>24)</sup> 한 사람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이 작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고도의 지적·정적·영적인 작업이다. 그러므로 선교를 하기 전에 선교지와 선교지 사람들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인 도시 전문가 레이 바키(Ray Bakke)는 우리가 선교 전략을 개발하기 전에 ‘도시를 해석하기’ 위해 도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sup>25)</sup>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지역적 상황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선교지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문화 위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초기 선교사들은 무엇을 했으며, 현재의 선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선교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선교지의 위기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데서 일어난다. 선교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기들이 주장하는 믿음과 상치되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선교지 상황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현지인에게 적합하고 현지인이 필요로 하는 방법보다는 선교사 입장에서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지 사람들에 대해 충분한 연구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사역들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선교지의 큰 위기이며 베트남 선교의 위기이기도 하다.

21세기 선교는 건물을 짓던 건축업에서 총체적인 두뇌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근육을 사용했던 선교가 이제는 머리를 사용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다. 선교지의 정확한 연구는 선교지에 대해 바른 전략을 세우게 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22) 이 글은 인도차이나 연구지 제 2호(2008. 6)에 실렸던 글을 재게재 했음.

23) 윤한열은 1999. 3. 7 GMS 선교사로 파송 받아 지금까지 캠퍼스(청년대학생)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24) 구제와 지역개발을 위해 일하는 기독교 단체인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인 대로우 밀러(Darrow L. Miller)도 그의 책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2000) p.77에서 가난의 뿌리를 세계관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빵을 가지고 가지만 목적은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25) 톰 사인(현문식 옮김, 2001), 겨자씨 VS 맥세상, 예수전도단, p.314.

우리는 선교지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근거해 선교하는 방법을 파격적으로 재창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베트남인의 국민성에 근거한 사회의 작동원리를 분석함으로써 말미암아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베트남 사람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 II. 사회 작동원리의 개념

사람들의 행동은 그 근처에 있는 정신적 지도(mental map)에 의해 정해진다.<sup>26)</sup>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정신적 지도를 심층적(광의) 측면에서는 세계관이라고 부르며, 표층적(협의) 측면에서는 작동원리라고 부른다.

개인의 행동과 사회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안으로 숨겨진 구조를 지닌다. 사건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보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련의 구체적인 사회의 심층적 작동원리를 분석하면 그 원인이 보인다. 강물 밑의 흐름 곧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역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무엇이 바로 작동원리이다.

작동원리는 잠재적 작동원리와 현재적 작동원리, 또는 표층작동원리와 심층작동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작동원리가 심층적인 작동원리이고 쉽게 변하는 것이 표층작동원리이다. 그리고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작동원리가 잠재적 작동원리이고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현재적 작동원리이다. 심층작동원리는 사회 내부에 내재되어 겉으로 표출되지 않으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원리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작동원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잉태되어 전승되는 관습, 민족성 등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정치적 지향에 따라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작동원리와 1986년 개방정책, 2000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2007년 WTO 가입으로 인해 급속히 형성된 '경제의 절대화' 라는 작동원리가 있다. 이것은 표층작동원리이고 또 현재적 작동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베트남적인 작동원리는 심층작동원리이고 그러한 작동원리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잠재적 작동원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작동원리는 상호작용 및 상호침투를 통해 상호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에 의해 도출되는 사회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그들이 겪은 생활사(生活史)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기존의 모든 것에 괄호를 치고 베트남 연구에 있어 베트남인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안경을 쓰고 베트남의 사회를 보아야 한다는 현상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 III.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

베트남 문화의 본질은 삶의 환경, 민족의 기원, 경제 유형,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26) 랄프윈터 . 스티븐 호돈 공동편저(정옥배 옮김, 2000), 미션퍼스펙티브, 예수전도단, p.317.

베트남의 삶의 환경은 따뜻한 기후와 수많은 강 지형에 따른 부드럽고 유순한 삶의 환경이며, 베트남 민족의 조상은 남아시아 채집인과 농업인의 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주요한 경제 유형은 수경 벼 농업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삶의 환경이 문화의 본질을 규정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인의 제일 기반이 되는 삶의 환경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덥고 뜨거운 기후 둘째, 많은 비와 수많은 강 셋째, 문명의 교차로(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고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곳,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곳,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가는 곳)이다.<sup>27)</sup>

이와 같은 삶의 환경에 의해 형성된 베트남 국민성은 다음과 같은 7가지가 있다. (1) 정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 (2) 눈치가 발달 (3) 체면 중시 (4) 촌락 공동체성과 민주성 (5) 관용성 (6) 공동체성과 자치성을 모두 가진 양면성 (7) 적당하게 일하는 방식<sup>28)</sup>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국민성은 베트남 사회의 심층적 작동원리의 근간이 되었으며, 표층적 작동원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의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위에서 살펴본 7가지 국민성의 특징에 근거한 쉽게 변하지 않는 심층적 작동원리가 주를 이루었던 단계이다. 2단계는 1975년 베트남 공산화 통일 이후 정치적 지향에 따라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작동원리가 등장한다. 3단계는 1986년 개방, 2000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2007년 WTO 가입으로 인해 급속히 형성된 '경제의 절대화' 라는 작동원리가 모습을 드러낸 단계이다.

## 1. 심층적 작동원리

사회 내부에 내재되어 겉으로 표출되지 않으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원리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베트남 사회의 중요한 심층적 작동원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모든 공문서 상단 중앙에는 '독립 . 자유 . 행복' 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 베트남인의 가장 중요한 심층적 작동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베트남인은 독립과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 1) 자유, 여유, 느슨함, 부드러움, 유순함

베트남인은 틀, 형식, 원칙을 싫어한다. 종속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시간적, 장소적 개념이 약하다. 뽀뽀하게 짜여진 것을 싫어한다. 끊고 맺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약속 시간은 고무줄 시간이다. 또 일터에서는 높은 수당을 주는데도 잔업 하는 것

27) Tran Ngoc Them, Tim ve Ban sac Van Hoa Viet Nam(2004), NXB Tong Hop Thanh Pho Ho Chi Minh, p. 575.(편 응옥 템: 베트남 문화의 본질 고찰)

28) Tran Ngoc Them, Bai Giang 'Tinh Cach Van Hoa Korea(So Sanh Voi Viet Nam)' cua Lop Tap Huan Han Quoc Hoc Danh Cho Lanh Dao Dia Phuong Viet Nam, 2007. 12.4-7.(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호찌민시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공동 주최하고 호찌민시 총영사관에서 후원한 베트남 지방 지도자를 위한 한국학 세미나에서 편 응옥 템 교수의 '한국 문화의 성격(베트남과 비교)'강의안에서 발췌).

을 싫어한다.

자유, 여유, 느슨함, 부드러움, 유순함이 심층적 작동원리로 형성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자연적 조건인 삶의 환경에 기인한다. 무더운 기후와 물(강) 문화로 인한 것이다. 무더운 기후는 자연적으로 자유, 여유, 느슨함, 부드러움, 유순함을 찾게 된다. 우기에 6개월 동안 매일 내리는 비와 북부의 홍강과 남부의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강의 지류로 인하여 베트남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물과 함께 살아왔다. 강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고기 잡고, 집집마다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다닌다. 베트남인들은 물(강)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강에서 살아가고 있다.

베트남은 열대몬순기후지역에서도 아주 강우량이 높은 나라이다. 빈투언(Binh Thuan) 성으로부터 탁인호아(Thanh Hoa)에 이르는 1,500km 이상의 쩌엥선(Truong Son) 산맥 동쪽 기슭은 강우량이 1,500-4,000mm에 이르고, 이 지역에는 2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강이 있다. 남부의 평균 강우량은 2,330mm이고, 북부 산악지역의 평균 강우량은 3,000mm이고, 평야지역은 2,000mm이다.<sup>29)</sup>

비가 많고 수증기의 증발은 적기 때문에(평균습도가 85-100%), 그 빗물은 10km 이상의 강만도 2,360개나 만들었다.<sup>30)</sup> 이러한 강들이 98%가 모두 베트남 영토 내에 있다. 또한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나는 두 개의 큰 강이 베트남을 통과하여 바다로 흘러간다. 하나는 북쪽의 홍강으로 매년 1,220억m<sup>3</sup>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타이빈강과 함께 흔히 홍하델타라고 부르는 북부 평야지대를 이룬다. 다른 하나는 메콩강이다. 두 개의 지류가 베트남 영토를 지나며 하구 쪽에서는 아홉 개의 지류로 갈라지기 때문에 구룡강이라고 부른다. 유량(流量)이 1조 4천억m<sup>3</sup>에 이르고, 4만km<sup>2</sup>의 비옥한 메콩델타를 형성했다.<sup>31)</sup>

홍강과 메콩강을 배로 여러 지류를 다니다보면 자유로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유순해지는 건 당연할 것이다. 강의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 가는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은 액체로서 끊어지지 않는 부드러움, 만져도 잡히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베트남인에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유, 여유, 느슨함, 부드러움, 유순함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매사에 개념이 없고 대답은 하지만, 책임감이 없는 불명확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자유, 여유, 느슨함, 부드러움, 유순함이 심층적 작동원리로 형성된 두 번째 원인은 풍부한 물과 강을 바탕으로 한 수경 벼 농업 때문이다. 풍부한 물과 강으로 인해 북쪽에는 홍하델타, 남쪽에는 메콩델타라고 부르는 두 비옥한 평야지대를 이루게 되었다. 베트남 민족은 이 두 평야지대에서 문화를 이루고 살았으며 지금도 인구의 60-70%가 이 두 평야지대에 살고

29) 부썬투이(배양수 옮김, 2002),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대원사, p. 15.

30) 위의 책 pp. 15-16에서 재인용(Le Ba Thao, 1997, Vietnam: The Country and Its Geographical Region, Hanoi: The gioi Publishers, pp.76-77).

31) 부썬투이(배양수 옮김, 2002), p. 16.

있다. 이러한 삶의 환경으로 전통적으로 베트남 국민 대부분이 수경 벼 농업을 생업으로 한다. 21세기인 현대도 전 인구의 70-80%가 농업인구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쌀 수출국 2위로 대부분의 쌀이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된다.

베트남은 1년에 3모작을 한다. 1년에 3모작을 하는 베트남의 수경 벼 농업은 1모작을 하는 한국의 농부들보다 오히려 더 자유와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여유가 있다 보니 시간과 장소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부드럽고 유순한 국민성을 가지게 되었다. 원칙보다도 순리에 따라 적응하며 정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배운 것이다.

현재 베트남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도시 생활에서도 여전히 농업사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베트남의 최대도시인 호찌민시는 토박이보다 직장, 학업, 사업을 목적으로 농촌에서 올라와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사회의 작동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 2) 애국주의

1428년 봄 응우옌 짜이(Nguyen Trai)<sup>32)</sup>가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쓴 ‘빈 응오 다이 까오(Binh Ngo dai cao, 平吳大誥)’에는 베트남인의 사상적 기반, 심층적 작동원리로서의 애국주의가 잘 나타나 있다. 베트남의 모든 문화 속에 애국주의는 아주 친밀하고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 베트남인은 도덕교육의 원리로서 구국을 가르쳤으며, 이것을 모든 것의 대의(大義)로 교육했으며 이 대의에 따르지 않는 자는 베트남인이 아니라고 했다.

쩐 반 야우(Tran Van Giau) 교수는 그의 논문 ‘애국주의-베트남 문화 속에 풍부한’에서 “빈 응오 다이 까오(Binh Ngo dai cao, 平吳大誥)는 ‘애국주의’라는 가장 위대한 베트남인의 사상적 보물을 가지고 왔었다”<sup>33)</sup>라고 말했다.

응우옌 짜이(Nguyen Trai)는 ‘빈 응오 다이 까오(Binh Ngo dai cao, 平吳大誥)’에서 베트남 전통 애국주의의 한 기초로 민족 자긍의식에 대해 강조한다. “애국은 민족 사랑이며, 구국은 민족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빈 응오 다이 까오(Binh Ngo dai cao, 平吳大誥)’의 큰 사상이다.<sup>34)</sup>

베트남의 애국주의는 편협한 국가주의가 아니며, 종족주의도 아니다.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한 국토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그들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 자연스레 배어 있는 심층적 작동원리이다. 이 작동원리는 중국을 비롯한 북방민족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진가를 발휘했다. 특히 현대사에서 프랑스와의 독립전쟁과 미국과의 민족해방 전쟁에서 전 베트남 사회의 심층적 작동원리로서 역동적으로 나타났다.

32) 1380-1442. 레 러이와 함께 명의 지배에 대항해서 싸운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략가, 사상가, 외교가, 시인, 지리학자, 음악가였다. 베트남의 국민 시인으로 추앙 받고 있으며 대명 투쟁 당시 레 러이의 문장을 모두 대신 썼다고 한다. 1428년 명에게 승리했을 때 ‘빈 응오 다이 까오(Binh Ngo Dai Cao)’를 썼다.(오구라 사다오(박경희 옮김, 1999),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사, 일빛, p.265).

33) Tran Van Giau, 'Chu nghia yeu nuoc-Net dam da trong van hoa Viet Nam' 「VAN HOA VIETNAM-dac trung va cach tiep can」, NXB BAN GIAO DUC, 2001, p.41.(쩐 반 야우: ‘애국주의-베트남 문화 속에 풍부한’, 「베트남 문화-특징과 접근 방법」).

34) 위의 책 p.42.

### 3) 영웅주의-조상숭배

베트남은 영웅의 나라이다. 영웅을 좋아하는 나라이다. 영웅을 만들어 내는 나라이다. 영웅이 없으면 누군가를 영웅시 하는 나라이다. 영웅들의 이름이 날마다 수도없이 불려지는 나라이다. 온 나라가 영웅들의 이름으로 덮여있다. 베트남의 모든 거리이름은 영웅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특히 애국주의에 근거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공을 세운 전쟁 영웅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다. 베트남의 모든 도시의 가장 길고 넓은 거리는 큰 영웅들의 이름순으로 되어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항상 영웅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소나 장소를 말할 때는 항상 영웅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서점에 가도 온통 영웅들의 전기들이다. 베트남의 장구한 역사 속에 애국주의는 수많은 영웅들을 탄생시켰다.

흥(Hung) 왕들에 의해 다스려진 반랑(Van Lang)시대부터 영웅들의 이름과 나이와 함께 하는 대월(Dai Viet)시대, 영웅호걸 리 트엉 키엣(Ly Thuong Kiet), 쩐 흥 다오(Tran Hung Dao), 응우옌 짜이(Nguyen Trai), 응우옌 후에(Nguyen Hue), 호 찌 민(Ho Chi Minh) 시대까지 애국주의는 항상 베트남 문화 속에 친밀하게 내포되어 있었고, 베트남인의 영웅주의는 베트남 역사 속에 그 골격이 되었다.<sup>35)</sup>

응우옌 짜이도 베트남은 몇 천 년의 장구한 전쟁의 역사 형성 과정을 지나면서 베트남만의 독특한 영웅호걸들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고 인식했다.<sup>36)</sup> 이러한 영웅주의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작동원리가 되었으며 현재 베트남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 최대 일간지 투오이 쩌(Tuoi Tre) 신문 2008년 3월 15일자 2면에 보면 “응우옌 반 코이(Nguyen Van Khoi)<sup>37)</sup> 열사에게 영웅의 칭호를 수여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 되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베트남 사회는 영웅을 중요시하고 영웅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사이다.

이러한 영웅주의는 베트남 사람들의 90% 이상이 행하는 조상 숭배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근래에 있어서는 호찌민을 실제보다 더 영웅시하여 국가적으로 숭배하는 호찌민 사상(신격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상 숭배는 이 영웅주의 문화에 근거해 더 발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조상 숭배는 한국과 중국의 조상 숭배와는 다르다. 한국의 조상 숭배는 단순히 집안의 직계 조상 2-3대를 숭배하지만 베트남 조상 숭배 사상은 집안의 직계조상도 숭배하지만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집안의 영웅, 나아가 국가적인 영웅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러 면에서 한국의 조상숭배 보다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정월이 되면 베트남의 각 사당에는 영웅들을 숭배하기 위한 사람들로 붐빈다.

특별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중심에 위치한 호안키엠(Hoan Kiem) 호수 북쪽에 위치한 사

35) 위의 책 p.44.

36) Phan Ngoc(2001), 'Ban sac van hoa Viet Nam' 「VAN HOA VIET NAM-dac trung va cach tiep ca n」, NXB BAN GIAO DUC, p.61.(판 응옥: '베트남 문화의 본질', 「베트남 문화-특징과 접근 방법」)

37) 1942년 자딘(Gia Dinh)에서 출생했으며, 17세부터 독립 해방 전쟁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다.

당은, 쩌(Tran) 왕조 시대에 건립된 응옥 쩌(Ngoc Son) 사당<sup>38)</sup>으로 전형적인 도교와 유교 색채를 풍기는 사당이다. 내부에는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 반 쓰엉(Van Xuong), 13세기 몽고의 침략을 무찌른 전쟁 영웅 쩌 흥 다오(Tran Hung Dao), 의사 라 또(La To)의 상이 있어 이들을 기리고 있다. 사원은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의 아치형 붉은 색 테 흑(The Huc) 목교를 통해 들어간다. 정월에 가면 향을 피우고 영웅들을 추모하며 소원을 비는 하노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베트남인의 조상 숭배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살펴보면, 죽음은 조상이 있는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상은 저승에 있지만 항상 자유롭게 왕래하며 자손들을 보호하며, 자손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제단을 만든다.<sup>39)</sup> 이러한 조상 숭배는 동남아시아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지역의 문화의 특수성이다.<sup>40)</sup> 그러나 민족학 학자인 러시아 사람 G.G. Stratanovich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조상 숭배는 모든 면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보편적이고 더 발전되었다.”라고 한다.<sup>41)</sup> 집안에 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설치하지 않고 신성시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몇몇 가정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사람에게 있어서 조상 숭배는 거의 한 종교에 가깝게 되었다. 남부 사람들은 조상 숭배를 할아버지 할머니 종교라고 부른다.<sup>42)</sup>

## 2. 표층적 작동원리

사회의 표층적 작동원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고,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원리이다. 오늘날 베트남 사회에 감지되는 작동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정치적 지향에 따라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작동원리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986년 개방정책과 2000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그리고 2007년 WTO 가입으로 인해 급속히 형성된 ‘경제의 절대화’라는 작동원리이다.

### 1) 이데올로기적 작동원리-국가중심 체제의 작동원리

이데올로기적 작동원리는 국가중심 체제의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다.

#### ①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조국독립 . 민족해방

1975년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로서 이데올로기적인 작동원리가 많이 가동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베트남의 내재적인 논리가 무시되는 맹목적인 전체주의적 접근이나 표피적인 선정주의를 띠는 경향이 있어 왔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을 사용하여 베트남 공산주의 체제를 인식하고 비판함으로써 종종 현실을 왜곡하거나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베트남 민족의 근대사는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의 확장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 휩쓸

38) 응옥 쩌 사당은 13세기 쩌 왕조 때 장건 되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1865년 재건된 것이다.

39) 조상신을 섬기는 제단을 베트남 사람들은 반터(Ban tho) 라고 한다.

40) Dinh Gia Khanh(1993), Van hoa dan gian Viet Nam trong boi canh van hoa Dong Nam A, NXB KHXXH, p.43(딘 야 칸: 동남아 문화 배경 속에서 베트남 민간문화).

41) Tran Ngoc Them, p. 249에서 재인용.

42) Tran Ngoc Them, p.249.

려 들어가면서, 근대적 독립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요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식민지배와 분단이라는 120여 년에 걸친 수난의 민족사를 관통하는 제일의 역사적 가치는 ‘조국독립 . 민족해방’일 수밖에 없었다. 민족해방은 식민시대에는 제국주의적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분단시대에는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을 의미하였다.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민족 현대사의 아픔이며 ‘인류의 양심에 그어진 상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란 명제로 평가된 민족해방 전쟁이다. 그리하여 민족해방에 대한 요구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민족해방을 지고의 가치로 삼는 관념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베트남 사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면 공산주의일 것이다. 베트남 사회의 중요한 작동원리로 공산주의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이다. 왜 이들이 공산주의를 차용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중국, 베트남은 모두 독특하게 변용된 자기들만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고전적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방식의 독재체제가 아니다. 북한은 순수정통 공산주의를 지향하기보다는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우리 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을 지향하고 있다.<sup>43)</sup>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주의도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왔던 공산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이념적 순수성을 지닌 정통공산주의에 가깝다면 베트남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이다.

베트남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의 변형으로 민족주의의 알맹이와 공산주의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민족해방이라는 혁명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와 대결되는 이데올로기를 전략적으로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냉전시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구도는 베트남의 민족주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sup>44)</sup> 그러므로 베트남 사람의 강한 민족주의와 지독한 현실주의는 민족의 번영, 국가의 발전이라는 현실 앞에서 언제든지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75년 통일 이후, 통일된 베트남 사회를 움직여 온 이데올로기적 작동원리는 한국 사람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는 북한식 공산주의가 아니라,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 상황아래 ‘조국독립 . 민족해방’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이다.

## ② 호찌민 사상

베트남 통일 이후, 문화 통합 과정에서 부딪친 가장 큰 난제는 남북의 이질성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상 문화의 이질성은 가장 큰 문제였다. 게다가 서로 다른 53개의 소수민족이 있다는 사실은 “조국은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 나가는 문화 통합 과정을 더욱 어렵게만 했다. 이에 하노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상 통합을 위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호찌민 사상 부각’ 정책이었다.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남북의 단합된 민족공동

43) 오기성(1999), 남북한 문화통합론, 교육과학사, p.93.

44) 전경수 . 서병철(1997),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 독일과 베트남, 서울대학교 출판부, p.114.

체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아시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의 통합된 베트남 사회, 급속하게 발전하는 베트남이 존재하게 되었다.

통일 베트남 정부는 호찌민을 인민과 동떨어진 강력한 통치자, 장군, 군주로 인식시키지 않았다. 인민들을 위한, 인민들 가까이 있는 ‘아저씨’의 이미지로 부각시켰다. 그래서 베트남의 모든 초 . 중 . 고 학생들은 호찌민을 ‘호찌민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의 초상과 동상에도 모두 ‘호찌민 아저씨’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그가 지녔던 조국애, 동포애, 검소함, 진실성 등을 강조하며 호찌민의 사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출판하였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호찌민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 대학원에서는 전문적으로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 과정도 개설되었다. 그리하여 베트남 통일 32년이 지난 지금 호찌민은 대부분 베트남 국민의 국부로,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WTO 가입이후 외국자본과 함께 외국 사상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 올 것을 대비해 호찌민의 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국회에서는 국회 내에 호찌민 사상 보존 연구위원회를 두었고, 최근에는 초 . 중 . 고 . 대학교와 관공서 그리고 큰 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붙여 놓았다. “Hoc tap va lam theo tam guong dao duc Bac Ho”(호찌민 아저씨의 도덕적 모범을 따라 학습하고 일하자!) 또한 남베트남의 대통령령이었던 통일회당 앞으로 뻗어있는 레쥬안(Le Duan) 대로와 같은 주요 장소 곳곳에는 다음의 입간판이 있다. “Tu tuong Ho Chi Minh la tai san tinh than to lon cua Dang va dan toc cua ta.”(호찌민의 사상은 당과 민족의 거대한 정신적 자산이다.)

호찌민 사상의 부각은 베트남 사회의 심층적 작동원리인 애국주의 그리고 영웅주의와도 절묘하게 맞물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호찌민 사상의 부각’ 정책은 1975년 통일 이후 문화 통합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성공한 사상 통합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도 여전히 베트남 사회 작동원리로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 ③ 승자독식-일당독재체제 지속

베트남은 남북 주민들의 삶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진정한 사회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베트남은 심리적, 물리적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힘을 소모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 통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뿌리 깊은 남북간 지역감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sup>45)</sup> 통일 이후 승자가 된 북쪽 사람들이 모든 기업과 조직의 상층부를, 남쪽 사람들은 고용자로서의 지위만을 점유하고 있었다. 모든 조직에서의 결정권은 북쪽 사람들이 행사하고, 남쪽 사람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통일 이후 남쪽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및 국가안전 등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요직은 북쪽으로부터 파견된 당 요원들이 장악하였다. 이들은 당의 모든 레벨에 다 속해있지만, 특히 당의 노선을 일반 국민들에게 마지막 전달하는 최종단계로 갈수록 그 숫자도 많아졌다. 이들은 당원 가운데 특별히 선발된 요원이며, 당의 활동에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당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충성스럽고, 지적이며 마르크스-레닌이론을 잘 알고 당의 노선을 숙지한 완벽한 공산당원이다. 이들은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배자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일부 요원들은 일반 인민들의 생활, 자유, 그리고 재산권에 오히려 큰 억압이 되었다.<sup>46)</sup>

45) 김도태(1993), 베트남 통합사례 연구(연구보고서 93-14), 민족통일연구원, p. 166.

1975년 통일 이후 1986년 개방 이전까지 베트남의 사회 통합은 한 마디로 북화에 기반을 둔 승자문화 지배현상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쪽 주민들은 이러한 지배현상을 패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반대로 북쪽 주민들, 특히 당 요원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 작동원리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제 개혁 . 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외국자본과 외국 문화가 유입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승자독식의 사회 작동원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중심 체제의 작동원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승자들은 알기에, 할 수만 있다면 승자독식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 애국주의, 영웅주의, 호찌민 사상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승자가 계속 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생존하며 승자독식의 사회 작동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의 승자들, 기득권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다당제의 도입이다. 다당제가 도입될 경우 공산당이 정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만 정치적 성향을 띤 각종 포럼, 출판, 집회, 시위, 종교적 모임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베트남 국가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할 때,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모순 중의 하나가 승자독식의 사회 작동원리이다. 중세의 봉건적 지배체제가 신분제를 중심으로 계층이동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했다면 오늘의 베트남 사회는 승자(당원, 관료, 군)를 중심으로 현대적 지배계층을 유지하고 있다. 이 현대적 지배계층의 꼭지점에 승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사회의 승자독식 구조는 통일 이후 지금까지도 사회의 작동원리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다만 계층상승과 사회적 신분 이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드넓은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깊은 영향을 드리우고 있다.

베트남 사회의 경쟁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이에 대한 성과보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승자들의 패거리주의에 의해 배타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승자독식 구조는 점령에 의한 통일이 만들어 낸 돌격대적 근대화 슬픈 유산이다.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내면의 사회 통합에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 중 주요한 한 가지는 한 사회의 작동원리가 개인의 능력과 개성, 그리고 창의력에 기반한 자아실현과 계층상승을 불가능케 하는 구조이다. 문제의 본질은 승자독식 구조와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산당일당독재체제이다.

## 2) 경제의 절대화-실리주의(개인간 연대의 작동원리)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큰 흐름에서는 국가중심 체제의 작동원리에서 개인 간 연대의 작동원리로 변하고 있다. 베트남 근대화의 역사적 사건인 1986년의 개혁 . 개방과 2000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그리고 2007년 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원리는 베트남 사회를 작동시키는 새로운 작동원리로 부상하고 있다.

46) 위의 책, p.384.

시장경제의 원리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의식구조도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운영방식도 국영에서 점차적으로 민영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 경영방식도 수익중심으로 전환, '수입' 기준으로 공장 및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있고,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제 '실리사회주의의 대담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시장경제 유입으로 인해 전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의식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 속에서 작동원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행복과 이익이 사회와 국가의 행복과 이익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작동의 대표적인 특징인 조직 연대가 약화되고 실리위주의 개인 사이의 연대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공적 활동 영역을 침범하여 사적활동을 추구해 가면서 국가와의 관계를 사적 이익에 맞게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비사회주의적 개인 간 연대가 중요한 체제작동 원리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인 간 연대와 정부 관료들과의 공생의 원리가 공공연하게 작동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함께 물가 폭등이라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그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베트남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를 이데올로기적 국가중심체제의 작동원리에서 경제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절대화하는 개인 간 연대의 작동원리로 변화시킨 원인에는 다음의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다. 그것은 1986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인 도 무어이(Do Muoi)가 실시한 '도이머이(Doi Moi: 개혁, 쇄신) 정책'과 2000년 체결된 '미-베트남 무역협정' 그리고 2007년 1월에 공식 승인된 '베트남의 WTO 가입'이다.

베트남 사회의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는 정권의 조장에 의해 촉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적 활동 영역 내에서 사적 활동이 공공연하게 진행되면서 베트남 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가치관의 변화가 심각하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인한 계층 간 갈등 양상은 승자지배(당원, 관료, 군인) 중심의 사회구조 근간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당국의 새로운 통제와 강압정책 실행으로 고비용의 체제유지비용 지불과 체제저항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리주의에 근거한 경제의 절대화 현상은 오히려 한국 사회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경제(돈)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사회의 작동원리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연일 부강한 국가건설과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외치고 있고, 국민들도 온통 경제(돈)에 몰입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베트남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월급에 따라 쉽게 직장을 옮기고,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행동방식에서 엿볼 수 있다. 경제를 절대화하는 이 작동원리는 베트남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IV. 선교 전략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잠재적 작동원리와 현재적 작동원리, 또는 표층작동원리와 심층작동원리는 상호작용 및 상호침투를 통해 상호규제를 하면서도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 사회의 작동원리 분석을 통해 베트남 사람에게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선교전략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 1. 자치, 자립, 자전의 중요성

베트남은 자연 환경의 요인에 따라 자유, 여유, 순리를 좋아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와 독립을 좋아하며 종속을 싫어한다. 반면 한국 선교사들은 저급한 우월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현지 사역자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쉽게 돈으로 동역자 관계를 맺는다. 내가 도움을 주면 나에게 속해야 하고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은 그렇지 않다. 물질적 도움은 받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원한다. 여러 한국 선교사들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 주도권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을 꺼려한다. 교회들도 충분한 정감이 쌓이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영적인 주도권을 선교사들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물질적으로는 외국인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정신적으로는 종속되기를 싫어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교회의 자립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네비우스 3자 정책이 떠오른다. 이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요약해서 3자 정책이라고 부른다. 즉 자치, 자립, 자전이다. 이 3자 원칙은 원래 영국 런던의 '교회선교협회'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총무 헨리 벤의 3자 정책 선교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를 치리한다는 것과, 원조 받지 않고 자기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전도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특별히 네비우스가 한국에서 강의한 10가지 핵심 사항 중 다섯 번째인 자립보급에 대해서는 "모든 예배당은 신자들 자신의 힘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교회가 설립되면 조사들의 봉급을 책임진다. 목사들의 봉급은 결코 선교사들의 보조에 의존하면 안된다." 라고 강조했다.

## 2. 정감이 넘치는 수평 관계 중심적 선교

베트남 사람은 전통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정을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문화는 '정감(Tinh Cam) 문화'라고 한다. 일 중심적이기 보다는 관계 중심적이다. 관계만 잘 형성되면 실수를 해도 아주 관용적이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서로 정감이 있어야 일 처리가 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정감을 중요시 하는 문화는 촌락공동체와 농촌 문화로 인해 형성된 베트남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이 정감을 중요시하는 관계 중심적이기보다 일 중심의 고용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 사람과 정감을 쌓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선교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국인 특유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근거한 권위의식을 버리고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베트남 사람은 매우 느긋하고 관용적이며 유순하다. 반면에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며 강직하다. 때문에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지도자로 세우기까지는

인내와 느긋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굵어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일하는 방식이며 한국 사람은 죽도록 일하는 방식이다.

베트남 개신교회는 1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 선교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개신교단인 베트남 복음성회는(C&MA)는 1,000여개의 교회와 60여만 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공산치하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역사와 문화는 한국보다 장구하며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도 자존심이 강하며, 미국을 제패하고 세계를 이긴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에게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수직적 인간관계 적용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준비문화가 발달되었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권위적이며 수직적 문화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수평적 관계의 민주적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 3. 베트남 민족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존중과 정치 불관여 원칙 준수

애국주의, 영웅주의의 베트남 사회 심층적 작동원리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민족보다 탁월하게 만들었으며, 서구 열강의 침략 속에서 형성된 조국독립·민족해방의 작동원리는 외세를 싫어하게 되었다. 1975년 통일 이후에는 호찌민 사상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국가 완성을 위해 힘썼다. 1986년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경제가 유입되면서 일당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반정부 활동에 아주 민감히 대처하게 되었다. 특별히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에는 단호하게 추방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선교사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선부른 정치 판단이나 관여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선교사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다.

### 4. 유교적 조상숭배와 가족문화의 존중과 이해

베트남의 가족중심문화, 조상숭배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선교의 목적인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베트남인들의 가족중심, 조상숭배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때 이들의 뿌리 깊은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쉽게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성경적 대안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 5. 베트남적 헌신 개념의 이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고 할 때 헌신의 개념이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사람은 기질상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 전적인 헌신을 한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유 있는 헌신을 원한다. 자연적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적당히 일하는 방식이며 한국 사람은 많이 열심히 일하는 방식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향한 인내가 절실히 요구된다.

### 6. 경제 지원 선교방식 의존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음 중심적 선교

현재 베트남 사회의 표층적이고 현재적인 작동원리는 '경제의 절대화'이다. 오랜 전쟁과 가난 그리고 1986년 개혁 . 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들어와 정착하고, 미-베트남 무역협정과 WTO 가입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경제의 절대화가 베트남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의 절대화'라는 작동원리가 지배하는 베트남 사회 속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선교사를 돈줄로 생각하는 현지사역자들, 선교사는 예배당 지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현지 사역자들, 선교사 잘 만나면 유학도 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덤벼드는 이들에게 선교사들은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베트남 교회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물질적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자립성을 말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도행전 3장 5절-6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라는 말씀이 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 경제가 절대화된 사회에서 금전이 아닌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 선교가 필요한 시기이다.

## V. 나가는 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선교사들은 전략적 사고를 하는 낙관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변하기에 베트남 사회도 변하고 있다. 또 베트남 사회를 움직이는 작동원리도 변하고 있다. 이 데올로기적 작동원리에서 현실적, 실용적 작동원리로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작동원리로 가동되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된다. 그 날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하고 소리 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작동원리에 헌신한 자들에 의해 앞당겨 질 것이다.

당대에 최고의 학자였던 유비의 스승인 노식은 조정의 명을 받아 먼 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제자 유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필요한 것은 문장과 학식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힘이다.” 선교지가 어지럽다. 선교지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인 이때에 진정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론과 전략보다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용기이다.

## 참고 자료

### 1. 한국어 자료

- 1) 김도태(1993), 베트남 통합사례 연구(연구보고서 93-14), 민족통일연구원.
- 2) 대로우 밀러(윤명석 옮김, 2000),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예수전도단.
- 3) 랄프윈터 . 스티븐 호돈 공동편저(정옥배 옮김, 2000), 미션퍼스펙티브, 예수전도단.
- 4) 부썬투이(배양수 옮김, 2002),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대원사.
- 5) 오구라 사다오(박경희 옮김, 1999),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사, 일빛.
- 6) 오기성(1999), 남북한 문화통합론, 교육과학사.
- 7) 엘리아데(이은봉 옮김, 1997), 종교형태론, 한길사.
- 8) 유인선(1983), 베트남사, 민음사.
- 9) 전경수 . 서병철(1997),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 독일과 베트남, 서울대학교 출판부.
- 10) 톰 사인(현문식 옮김, 2001), 겨자씨 VS 맥세상, 예수전도단.

### 2. 베트남어 자료

- 1) Dinh Gia Khanh(1993), Van hoa dan gian Viet Nam trong boi canh van hoa Dong Nam A, NXB KHXH(딘 야 칸: 동남아 문화 배경 속에서 베트남 민간 문화).
- 2) Le Ngoc Tra(2001), VAN HOA VIET NAM-dac trung va cach tiep can, NXB BAN GIAO DUC(레 응옥 짜, 베트남 문화-특징과 접근 방법).
- 3) Tran Ngoc Them(2004), Tim ve Ban sac Van Hoa Viet Nam, NXB Tong Hop Thanh Pho Ho Chi Minh(쩨 응옥 텨: 베트남 문화의 본질 고찰).
- 4) Tran Ngoc Them, Bai Giang 'Tinh Cach Van Hoa Korea(So Sanh Voi Viet Nam)' cua Lop Tap Huan Han Quoc Hoc Danh Cho Lanh Dao Dia Phuong Viet Nam, 2007. 12.4-7(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호찌민시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공동 주최하고 호찌민시 총영사관에서 후원한 베트남 지방 지도자를 위한 한국학 세미나에서 쩨 응옥 텨 교수의 '한국 문화의 성격(베트남과 비교)'강의안).

## 알렉산드르 드 로드 선교 리더십의 21세기 적용<sup>47)</sup>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역사에 궁극적 기여를 한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

윤한열

### 들어가는 말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유럽 및 미국과 폭력적으로 조우했던 나라였다.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포르투갈, 네델란드, 프랑스,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과 침략을 받았지만 그래도 베트남은 민족적 자주성을 오늘까지 유지해 오면서, 독립, 자유,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작은 거인국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의 모습은 바삭 말랐지만 쉽게 쓰러지지 않으며, 비극으로 점철되었지만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나라이다.

1975년 통일을 이루고 그 하나됨의 함성으로 국제무대에서 ASEAN을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 베트남.

펄박 중에 일어서고 있는 베트남 교회, 2011년 선교 100주년 기념 대 집회를 기해 이 땅의 부흥과 동남아시아의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기를 꿈꾸는 베트남 땅에서 '리더십'에 대한 담론을 나누며,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궁극적 기여를 했던 한 인물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알렉산드르 드 로드가 예수회 선교사이기는 하나 개신교 선교사로서의 학문적 출발점과 정체성을 가지고 연구한다면 알렉산드르 드 로드의 선교적 리더십은 21세기 선교 현장에서 리더십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확신하며,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알렉산드르 드 로드는 선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베트남 민족과 국가에 궁극적인 기여를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 I. 알렉산드르 드 로드(Alexander de Rhodes)의 생애

#### 1. 베트남에 오기까지

드 로드는 프랑스의 아비뇽(Avignon)에서 1593년 3월 15일에 태어났다. 그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비뇽의 예수회 대학에서 철학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아시아의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프랑스 예수회를 통해 입단하지 않고 로마에서 예수회의 수사가 되었다(1612년). 그는 처음부터 아시아 선교를 꿈꾸던 청년이었다. 1614년 당시 제 5대 예수회 총장이었던 아콰비바(Claudius Aquaviva, 1543-1615)에게 편지를 보내 아시아 선교사로 파송시켜 줄 것을 자청하였다. 그러나 모든 예수회 수사들은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신학 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회의 명문 대학이자 아시아 선교의 선구자였던 마테오 리

47) 이 글은 2010년 11월 제 7차 CSCA 세미나(자료집)에 발표되었던 글을 재게재 했습니다.

치(Matt대 Ricci)가 수학했던 로마대학에서 신학 과정을 공부했다. 신학수업이 끝나갈 무렵, 예수회 총장 무티오 비텔레치(Mutio Vitelleschi, 1563-1645)에게 서한을 보내 아시아 선교사로 자신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의 줄기찬 아시아 선교 자청은 마침내 예수회 총장의 결정에 따라 허락되고, 4년간의 신학교육 과정 이수와 사제 서품을 마친 후에, 그는 아시아를 향한 장도에 오른다(1618년).

1619년 7월 20일 예수회 선교총본부가 있던 인도 서해안의 고아(Goa)에 도착했던 드 로드는 그곳에서 뜻 하지 않게 3년을 보내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의 선교를 자청했던 드 로드가 고아에서 지체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의 그리스도교의 박해가 극심해 대기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1622년 일본의 선교 상황이 호전되어 인도를 출발했으나 태풍과 해적들의 위협으로 말라카에서 또 9개월을 또 기다리게 된다. 1623년 5월 29일, 마침내 일본 선교본부이자 동아시아 예수회 선교본부가 위치해 있던 마카오에 도착했다. 마카오에는 예수회 대학이 있었다. 그는 다시 마카오의 예수회 대학에서 약 1년을 머무르며 일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다. 선교사역을 위한 일본어와 중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던 드 로드에게 새로운 선교지가 할당되었다. 그곳은 코친차이나였다. 그는 교황과 총장, 그리고 상관 수도사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예수회 전통에 따라 즉각 새로운 선교지, 코친차이나로 이동했다(1624년 12월). 선교 현지어 교육을 강조하던 예수회 정책에 따라 드 로드의 현지 언어교육이 즉각 시작되었다.

## 2. 알렉산드르 드 로드의 연대표

### 1) 아비뇽-로마

1593, 3, 15 아비뇽에서 출생  
1612, 4, 14 로마에 있는 예수회에 가입  
1614-18 로마에서 신학 수업  
1618 사제 서품

### 2) 로마-마카오

1618 로마 출발  
1619, 9 여러 나라를 거쳐 인도의 고아에 도착  
1623, 3, 29 여러 곳을 거쳐 마카오에 도착

### 3) 코친차이나에서의 첫 번째 사역

1624 마카오 출발  
1624-1626 코친차이나에서 언어 훈련 집중  
1626 통킹 선교를 위해 마카오로 돌아 옴

4) 톡깅 사역

- 1627, 4 쯤 짱 영주와 첫 만남
- 1627, 5 톡깅에 첫 교회 세움
- 1627, 7 수도 탕롱에 도착
- 1630 톡깅에 교리학교 설립
- 1630-40 마카오 예수회 대학에서 교수 생활

5) 코친차이나에서의 두 번째 사역

- 1640, 2-1645, 7

6) 마카오-인도네시아-페르시아-로마

- 1645, 12-1649, 6

7) 로마-파리-페르시아

- 1649-52 베트남 선교 동원을 위해 로마로 돌아 옴
- 1660, 11, 5 사망

## II. 선교 철학 및 정책과 관련한 리더십 : 선교적 리더십의 기반

### 1. 선교사로서의 준비와 열정 그리고 Follower 정신

알렉산드르 드 로드의 생애를 통해 분석할 때, 그는 일찍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고 단계적으로 착실히 준비했었다. 선교적 영향력이 있는 명문학교에서의 신학수업, 단체 가입, 선교훈련, 제 3국에서의 현지 문화 적응 훈련, 언어훈련 등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아시아 선교사 파송 청원을 통해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그의 리더십에서 주목할 것은 Follower 정신이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규정을 철저히 지켰으며, 선교 정책에 충실했다. 수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선교지를 변경하라는 단체의 지시가 내려오자 즉각 이동 했다.

적용: 이른 헌신의 소중함, 준비된 선교사, 좋은 Follower가 될 때 좋은 Leader가 될 수 있다.

### 2. 언어에 탁월한 재능: 현지어 숙달을 선교의 첫걸음으로 이해

드 로드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언어교육을 받았으며, 그는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한지 불과 4개월 만에 드 로드는 간단한 원주민의 신앙고백을 이해 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그는 코친차이나에 체류했던 1년 반 동안 줄곧 언어 훈련에만 매달렸다. 드 로드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현지어 중시 전통을 철저히 따랐던 인물이었다.

그가 두 번에 걸쳐 코친차이나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톡깅에서 영주의 환대를 받으며 수도

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베트남어 실력 때문이었다.

### 3. 토착문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Inculturation): 베트남 문화, 종교, 전통적 풍습의 그리스도교적 해석과 교회적 적용

드 로드는 베트남의 문화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적인 유럽식 사제복을 벗고 베트남 중산층들의 옷을 입고 선교에 임했다. 그는 복장을 통해 토착화된 선교를 시도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베트남 문화를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하는데 선교적 관심을 기울였다. 베트남의 풍습을 무조건 반그리스도교적 혹은 야만적이라고 폄하하지 않았다. 예를들면 드 로드는 베트남의 설날 축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특별히 설날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풍습에 대해 조상신이 차지하는 종교적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던 드 로드로서는 그 풍습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선교적 접촉점을 모색하려고 했다(예: 삼일동안의 설날 축제). 그는 단순히 이방의 문화를 부정하거나 백안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분별하고 이를 그리스도교화하는 토착화(문화화)를 시도한 선교사였다.

적용: 선교사의 현지 문화 연구를 통한 유연성과 깊은 선교 신학적 통찰이 요구됨

## III. 선교 사역적 리더십

### 1. 상류층(중요한 리더) 선교 우선 원칙

#### 1) 코친차이나

드 로드는 베트남어 훈련을 받은 지 1년 만에 코친차이나의 영주 응우옌 호앙(1502-1613)의 마지막 첩(Minh Dye Thai Phi)을 개종시켰다. 이 여성 귀족에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주었다. 이 여인은 향후 드 로드의 베트남 선교에 없어서는 안될 막강한 후원자가 된다.

#### 2) 퉁킹

1627년 3월 퉁킹에 도착한 드 로드의 유창한 베트남어를 무기로, 호기심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도착한 지 두 주 만에 32명의 퉁킹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정도로 초기 선교는 대성공이었다. 한편 남쪽 코친차이나와 내전 상태에 있던 퉁킹의 영주 찐 짱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던 중에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영주는 드 로드가 코친차이나에서 보낸 첩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드 로드는 영주에게 유럽에서 가져온 시계와 안경을 선물로 바쳐 그의 의심을 무마시키고 환심을 산다. 일단 의심을 풀 영주는 남쪽으로의 행군을 계속하기 위해 그 마을을 곧 떠나면서 귀로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어쨌든 드 로드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퉁킹의 영주 찐 짱을 직접 만나 그리스도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스도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통킹 선교활동 기간 중에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선교업적은 유력한 불교 승려를 개종시킨 사건이었다. 그 승려는 자신의 땅에 작은 성당을 지었는데(1627년 3월 3일), 이것이 통킹 최초의 성당이었다. 그 승려 출신 개종자는 드 로드를 도와 기도문을 베트남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한편 코친차이나와의 전투에서 다시 뚜렷한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귀환하던 영주 찰 쟁은 다시 드 로드를 찾아온다. 드 로드는 다시 찾아 온 영주에게 중국어로 인쇄되어 있는 천문학 저서를 한권 선물하고 우주의 창조주에 대해 두 시간동안 설명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때부터 통킹의 영주는 예상과는 달리 드 로드에게 우호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영주는 드 로드와 다른 선교사들의 통킹 체류를 허락하고 법률적인 보호까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수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다. 상류층 선교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드 로드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었다. 드 로드는 영주를 따라 수도로 즉각 이동했다(1627년 7월 2일).

1627년부터 통킹의 수도에 머무르는 동안 드 로드가 이룩한 중요한 업적은 영주의 여동생(세레명 케서린)과 그 딸을 개종시킨 것과 영주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던 유력한 법관(세레명 조아킴)을 개종시켜 중국어 실력을 통해 불교 승려들과의 종교 논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드 로드 선교사는 중국어에 능통한 이 법관을 도움을 받으며 불교 승려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중 한명(세레명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은 1643년 예수회 수사가 되었다.

그 외에도 상류층을 전도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드 로드는 상류층의 리더들을 막강한 후원자로 양성하는 리더십이 있었다.

#### 적용

오늘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지나치게 하류층(가난한 자, 소수민족, 학식이 낮은 자) 선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동기가 무엇이며, 왜 그럴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인도차이나 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계층, 영향력있는 상류층, 리더들을 위한 전략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 2. 원주민 교육시켜 자체적으로 사제 양성

드 로드 선교사는 선교사가 떠난 다음에도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도들을 모아 약식 수도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취 했다. 드 로드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선교적 발상이 아니었다. 미사를 인도하고 세례를 베푸는 권리를 사제가 아닌 선교지 원주민에게 위임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이러한 자치적인 현주민의 수도회가 활성화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 드 로드가 두 번째 통킹의 수도에 머무르는 동안(1629년 11월-1630년 5월) 무려 5,062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1649년 7월 27일 로마로 돌아 온 드 로드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약 30만 명의 그리스도교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 추산대로라면 매년 15,000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교성성에 보고했다. 그의 추산대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교회를 위해서만 약 300명의 선교사

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드 로드는 포교성성에 제출한 보고서(1650년 8월 2일)에서 혁신적인 제안을 한다. 만약 300명의 선교사를 인도차이나에 파송한다면 통킹과 코친차이나의 영주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원주민을 교육시켜 자체적으로 사제로 양성하는 것이다. 드 로드는 베트남인들을 사제로 서품하여 자체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교황청과 포교성성이 추진해야 할 급선무는 이 과정을 지도할 교회의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것이라는 것이 드 로드의 확고한 주장이었다.

#### 결과

가톨릭 베트남 교구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의 10%이며 동나이성은 인구의 35%가 가톨릭, 두 명의 추기경

#### 적용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확고한 자립심을 키워줘야 하며, 이양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복음이 대부분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는 선교적 상황이다. 선교지에서의 요구와 필요가 달라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 더 훈련된, 실력 있는 현지 교회를 지도할 리더십을 갖춘 선교사 파송이 요구된다.

## IV. 사회, 국가적 리더십

### 1. 탁월한 외교술

드 로드는 유창한 베트남어 실력으로 현지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하므로 선교적 상황을 호전시켰다. 또한 예수회 총장과 교황청과의 관계에서도 탁월한 제안과 협상력으로 선교를 주도해 가는 리더십을 가졌다.

### 2. 출판 : 책을 출간하여 17세기 유럽에 베트남을 처음 소개

그는 유럽으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최소한 8권의 책을 발간하여 17세기 유럽에 베트남을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발표된 드 로드의 저서 중 유명한 네 권의 책은 *Divers voyages de P.Alesdre de Rhode en la Chine, & autres royaumes de l'Orient, avec son retour en Europe par la Perse et l'armenie*(Paris, 1653), 통킹의 역사, 선교와 교리문답서(알렉산드르 드 로드와 17세기 베트남에서의 문화화) 등이다.

### 3. 베트남 언어의 공식 표기법을 완성

리더십을 '영향력', 속한 공동체(조직,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궁극적 기여'라고 정의 내릴 때 알렉산드르 드 로드가 발휘한 최대 리더십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베트남 언어의 공식 표기법을 완성한 것이다. 원래 베트남 언어는 말라이(Malay)어와 타이(Thai)어 어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의 오랜 통치와 문화적 영향으로 상류층들은 주로 중국 한문을 사용해 왔다.

중국의 유학서와 불교 승려들에 의해 장려된 중국어 사용은 과거제도의 시행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되었다. 추 뇨(Chu Nho)로 불리는 이 언어는 일종의 베트남화 된 중국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베트남어의 통속어 표기는 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흔히 추놈(Chu Nom)이라 부른다. 이 추놈 표기법은 한마디로 중국어 표기법을 빌려 베트남어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17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이 추놈을 이용하여 교리 문답서를 발행했을 정도로 이 표기법은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표기법이었다.

그러나 드 로드는 베트남에 새로운 언어 표기법을 고안해 냈으며, 이 표기법은 지금 베트남어의 공식적인 언어표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한 마디로 베트남어를 라틴어 표기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베트남어는 여섯 개의 방식으로 발음되는 단음절 언어이다. 드 로드는 이러한 여섯 개의 발음 방식을 라틴어와 각종 유럽언어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베트남어 표기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1651 출간된 <베트남어 사전: Dictionarium>과 <교리문답: Catechismus>을 통해 베트남어 언어의 표기법을 정착시켰다. 이 베트남어 표기법은 18세기에 들어 추놈에 밀렸다가 프랑스의 베트남 통치와 함께 1907년 베트남 정부와 프랑스의 공식 결정에 따라 드 로드의 표기법이 베트남의 공식적인 언어표기법으로 승인되었다.

## 나가는 말

알렉산드르 드 로드(Alexander de Rhodes)는 17세기 예수회 선교사로서 베트남에서 사역했다. 그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균형잡힌 사람으로 예수회 초기 선교사들 중 중국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에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이다. 베트남을 베트남 사람보다 더 잘 알며, 뼈속 깊이 베트남의 정서를 받아 들였고, 삶과 사역을 현지화(베트남화) 하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발휘했던 선교 리더십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다. 그의 선교 리더십은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가톨릭 교구로 만들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알렉산드르 드 로드가 베트남 민족의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기억 한다. 그 결과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문맹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불타는 소명과 사역하며 관상하는 성령의 터치가 탁월한 리더십의 근원이었으며, 능통한 현지어에 기반한 현지 문화, 종교, 전통 풍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선교 사역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알렉산드르 드 로드는 언어와 지역학에 기반한 베트남 전문가였다.

## 참고도서

1. 김상근,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 한들출판사, 2006.
2. Peter C. Phan, Mission and Catechesis : Alexandre de Rhodes & Inculturation in 17th century Vietnam, ORBIS BOOKS, 2005.
3. NGO VAN PHU, KE CHUYEN LICH SU NUOC NHA, NHA XUAT BAN VIET NAM, 2008(응오 반 푸, 국가 역사 이야기).

◎ K-MAC 소개



2013년 10월 소식지

“호찌민 캠퍼스팀, K-MAC(케이맥)으로 거듭나다”

-Korean Missionary Alliance for Campus-

호찌민 캠퍼스팀은 지난 3년 동안, 결속과 돌봄을 통한 사명완수를 핵심 가치로 하여, 사역과 재정을 공유하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팀 빌딩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팀 사역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캠퍼스 복음화'의 과업 앞에서 캠퍼스(청년대학생) 사역에 관심 있는 한인선교사 연합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인도차이나와 2015년 유럽연합과 맞먹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단일 공동체 출범에 발맞추어 ASEAN 지역의 캠퍼스(청년대학생) 사역자 연합모임을 추진하여 ASEAN의 캠퍼스 복음화를 함께 꿈꾸고자 팀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믿음에 근거한 '더 나은 미래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상향성의 미래상이 아니라 하향성인 성육신의 정신으로 K-MAC은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그리고 ASEAN의 캠퍼스(청년대학생)를 섬기고자 합니다. 왕궁을 거절하고 광야로 간 모세의 영성과 애급의 말과 행사에 능통했던 모세의 지성으로 주께서 보여주신 미래상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 선교의 판도는 넘쳐나는 '젊은이들의 선교'에 달렸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K-MAC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처럼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K-MAC의 4대 중점 사역**

**1.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은 K-MAC 사역자들의 기초사역입니다. 현지대학생들과의 공동체 생활은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에 신선한 긴장감을 갖게 하며, 도시화된 21세기 선교현장에서 REAL 선교를 배우게 합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생활 방식 전체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생명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

았음을 현지대학생들과 나누면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갈수록 전도와 설교가 어려워지는 선교현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임을 저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고통도 있고, 필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2. 학사 공동체**

학사는 K-MAC의 핵심사역입니다.

달려진 선교지 베트남에서 대학생들을 모으고 양육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역입니다. 학사는 대학생들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현재 K-MAC은 두 개의 학사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로댐하우스(Lawdam House)와 비전팩토리(Vision Factory)입니다. 로댐하우스는 기독교법률가를 꿈꾸는 호찌민국립법과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사이며, 비전팩토리는 다양한 학교, 학과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사



입니다. 내년에는 여학생 학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MAC의 학사는 학생들이 학업과 영성생활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대학생 훈련 프로그램**

K-MAC은 매 학기 4개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신앙훈련(Basic Christianity Training) 으로 주로 1학년과 학사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1) 구원론 2) 자아상 3) 경건생활 4) 기독교 학생의 캠퍼스 생활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둘째, 캠퍼스 리더십 훈련으로 기독교대학생으로서의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일깨우는 훈련입니다. 1) 말씀 묵상의 실제(Q.T) 2) 주되심 3) 세계관 4) 학생운동과 세계복음화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셋째는 소그룹 리더십 훈련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소그룹 모임을 조직하고 섬기는 훈련입니다. 1)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2) 캠퍼스 복음화 전략으로서의 소그룹 운동

3) 베트남에서의 대학생 운동의 필요와 전망 4) 캠퍼스 기도 모임 조직의 실제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넷째는 캠퍼스 리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3단계 훈련을 모두 이수하고 리더로 선발된 3-4학년으로 구성된 훈련입니다. 매주 1회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식탁 교제, 각 캠퍼스 모임 상황 나눔, 성경공부, 독서토론, 기도 등으로 진행됩니다. 독서토론은 한국 IVF의 소그룹 리더핸드북을 베트남어로 베트남 상황에 적합하게 번역하여 읽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K-MAC 사역자들이 베트남어로 진행하며, 1-2개의 강의를 베트남인 사역자가 참여합니다.

**4. 대학교 강의**

K-MAC의 사역자들은 현재 모든 가정이 베트남 정규 대학교에서 노동허가서(비자)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캠퍼스 상황을 파악하며, 교수와 불신대학생을 접촉하고, 기신자들을 모으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께서는 저희들의 꿈을 긍휼히 여기시사 자력없는 자들을 베트남의 정규대학 강단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팀사역자들을 불드셔서 건강하게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이번 학기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 매주 화요일 캠퍼스 기도모임 조직을 위한 리더모임을 위해서
  - 11월 1-2일 진행될 제4회 기초신앙훈련을 위해서(학사 신입생과 1,2학년 대상)
3.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청년대학생 한인 사역자 포럼을 위해